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현행 고등영어 학습활동책 분석과 개선방안
-듣기 활동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任 柱 妍

2010年 8月

현행 고등영어 학습활동책 분석과 개선방안
-듣기 활동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金 鍾 勳

任 柱 妍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6月

任柱妍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0年 8月

<국문초록>

현행 고등영어 학습활동책 분석과 개선 방안

-듣기 활동을 중심으로-

任 柱 妍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鍾 勳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개인차를 반영하여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을 제창하였으나 여러 시행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 학습활동책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위해 제공된 고등영어 학습활동책의 듣기 활동이 수준별로 갖는 특징을 알아보고 개정안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의 학습활동책의 활용도를 살펴보고 듣기 활동의 보완점 및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서 사용 중인 5종의 학습활동책의 수준별 듣기 활동을 듣기 과정과 듣기 세부 기술면에서 비교 분석하였으며 수준별 수업 시 학습활동책을 활용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충단계의 듣기 활동은 상향식 듣기 과정 위주로 듣고 단계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이 많았으나 듣기 세부 기술면에서는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기본단계의 듣기 활동에서는 하향식 듣기 과정의 비중이 적었으며 듣기 세부 기술에서는 일부 기술에 편중되어 있었다. 심화단계의 듣기활동은 상호작용식 듣기 과정 위주로 제시되고 다른 언어 기능과의 통합 활동이 많았으나 듣기 세부 기술면에서는 편중현상이 제일 심하였다. 한편 ‘초분절음 인식’과 ‘언어수행변이’는 학습활동책을 통틀어 전 단계에 걸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듣기 세

* 본 논문은 2010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부기술로 분석되었다.

둘째, 듣기 활동은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문화와 통합 활동 및 소집단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교사들의 수준별 듣기 활동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학습활동책의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듣기 입력 자료로 실제성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다양한 듣기 세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듣기 활동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한다.

우선, 교육당국은 학습활동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 개발자는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학생 능력에 알맞은 듣기 활동을 개발하여 듣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제성 있는 듣기 입력 자료와 다양한 듣기 세부 기술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분절음 인식’과 ‘언어수행변이’는 그 중요성 면에서 이를 위한 듣기 활동이 보충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습활동책의 듣기 활동에서 부족한 듣기 세부 기술을 보충해야 하며 교실에서의 의사소통 기회를 늘리기 위해 소집단 활동으로 듣기 활동을 진행하며 듣기활동을 다른 기능과의 통합 활동으로 재구성하여 언어 기능의 고른 발달을 꾀해야 할 것이다.

목 차

국문초록	i
목 차	iii
표 목 차	v
그림목차	vi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의 구성과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2.1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4
2.1.1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4
2.1.2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영어과 수준별 수업	8
2.1.3 수준별 보조교과서로서 학습활동책의 역할	10
2.2 의사소통 중심 영어 교육에서 듣기의 중요성	14
2.2.1 듣기 과정	16
2.2.2 듣기 세부 기술	19
III. 학습활동책 듣기 활동 분석	26
3.1 분석 대상	26
3.2 분석 범위	26
3.3 분석 기준	27
3.4 분석 결과	29
3.4.1 분석의 실례	29
3.4.2 수준별 듣기 활동의 듣기 과정 비교 분석 결과	3

3.4.3 수준별 듣기 활동의 듣기 세부 기술 비교 분석 결과	39
3.5 분석 결과 논의 및 교육적 시사점	45
IV. 학습활동책의 듣기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48
4.1 설문 조사 대상 및 설문지 구성	48
4.2 설문 조사 결과	48
4.3 설문 조사 결과 논의 및 교육적 시사점	56
V. 결론 및 제언	59
참 고 문 헌	62
ABSTRACT	64
<부록> 고등영어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수준별 듣기 활동에 관한 설문지	65

표 목 차

<표 1> 제 7차와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비교	7
<표 2>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상의 수준별 수업내용	9
<표 3> 제 7차와 개정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의 특징 비교	10
<표 4> 학습활동책의 각 수준별 특징	11
<표 5> 분석 대상 학습활동책 목록	26
<표 6> 출판사별 학습활동책의 듣기 활동 분석 범위	27
<표 7> 분석에 사용한 듣기 세부 기술 기준표	28
<표 8> 보충 단계의 학습활동책의 듣기 과정 분석	36
<표 9> 기본 단계의 학습활동책의 듣기 과정 분석	37
<표 10> 심화 단계의 학습활동책의 듣기 과정 분석	38
<표 11> 보충단계의 학습활동책별 듣기 세부 기술 분석	40
<표 12> 기본단계의 학습활동책별 듣기 세부 기술 분석	42
<표 13> 심화단계의 학습활동책별 듣기 세부 기술 분석	44
<표 14>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 만족도에 대한 설문 응답표	49
<표 15>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 활용도에 대한 설문 응답표	50
<표 16>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 내용 및 구성에 대한 설문 응답표	51
<표 17>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 수업 조직 유형 및 통합 활동에 대한 설문 응답표	52
<표 18>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 입력 자료에 대한 설문 응답표 ..	53
<표 19>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과정 및 세부 기술에 대한 설문 응답표	55
<표 20>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 개선점에 대한 설문 응답표	56

그림 목 차

<그림 1> 듣기 과정 (Anderson & Linch, 1988)	19
<그림 2> 듣기자료와 듣기 과업 조작을 통한 듣기 세부기술 개발 (Richards, 1987)	19
<그림 3> 보충 단계의 학습활동책별 듣기 과정 유형	36
<그림 4> 기본 단계의 학습활동책별 듣기 과정 유형	37
<그림 5> 심화 단계의 학습활동책별 듣기 과정 유형	38
<그림 6> 보충 단계의 학습활동책별 듣기 세부 기술	40
<그림 7> 기본 단계의 학습활동책별 듣기 세부 기술	42
<그림 8> 심화 단계의 학습활동책별 듣기 세부 기술	44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화 시대에 국제 공용어로서 영어 사용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우리의 영어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실제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영어의 형태를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어 사용(use)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영어교육을 위해서 제 6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법의 난이도가 아닌 의사소통 기능(communicative function)에 따라 편성된 개념 기능 교수요목(notional-functional syllabus)을 채택하였다. 개념 기능 교수요목은 언어의 기능적 목적에 관심을 두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맥(contexts)이라 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바꿔 말해 문법적 구조를 교육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던 문법 중심 교수요목에서 탈피하여 언어사용의 화용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 교사 중심(teacher-centered)이 아닌 학습자 중심(learner-oriented)의 영어 교육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또한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수 학생들에게는 심화 과정을 제공하여 수월성 교육을, 학습 부진아에게는 보충과정을 제공하여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던 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실 현장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부족과 교사들의 수준별 수업 자료 개발에 대한 부담 및 미비한 교수 학습 환경 등 여

러 요인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07년 개정 영어 교육과정에서는 교사들의 수준별 수업 자료 개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수준별 수업을 지원하고자 국가차원에서 수준별 보조교과서라 할 수 있는 학습활동책을 개발하게 되었다. 수준별 수업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 개발된 학습활동책은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학습하고 자발적으로 학습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수준별 학습 활동자료, 자기 주도적 학습에 필요한 자료,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 문화 등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영어 학습활동책의 활동이 수준별로 갖는 특징을 알아보고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 무엇보다도 세부적으로 듣기 활동이 수준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것은 듣기 능력의 의사소통 능력에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듣기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원활한 구두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들은 바를 먼저 이해해야 하므로 듣기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듣기 능력이 다른 언어 기능보다 전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먼저 습득해야 할 기능이라는 점에서도 듣기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수업을 위해 제공된 5종의 고등영어 학습활동책의 듣기 활동을 비교 분석하여, 상향식 듣기 과정, 하향식 듣기 과정, 상호작용식 듣기 과정의 분포를 통해 수준별로 듣기 활동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수준별 듣기 활동이 어떠한 듣기 세부 기술을 선호하며 특정 세부 기술에 편중되지 않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수준별 수업 시 학습활동책을 활용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습활동책의 활용도 및 만족도를 알아보고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잘 반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에 덧붙여 학습활동책의 듣기 활동의 내용과 구성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구성과 제한점

본 논문은 다음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을 다룬다. 제 3장에서는 5종의 고등영어 학습활동책의 수준별 듣기 활동을 듣기 과정과 듣기 세부 기술면에서 분석하여 수준별로 듣기 활동이 갖는 특징을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학습활동책을 활용하는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듣기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학습활동책의 개선점과 교실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제 5장은 결론으로 앞에서 논한 바를 요약 정리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및 학습활동책은 총 17종으로 만들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5종의 학습활동책만 비교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고등학교 학습활동책으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듣기 세부 기술을 분류하는 데 있어 여러 선행연구와 학자들의 이론을 참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듣기 활동에 제시된 세부기술의 해석 과정에 있어 필자의 주관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셋째, 본 논문은 학습활동책의 듣기 활동만을 분석하였고 실제 현장에서 수업 활동 및 그 결과와 교실 수업과정에 대한 연구는 분석을 하지 못했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먼저 영어 학습활동책이 도입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달라진 수준별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한 영어 교육에서 듣기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듣기이해 과정 그리고 듣기 세부 기술을 여러 학자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 시행 이래 축적된 이론적 연구 및 현장 적용 실태를 분석하여 수정, 보완하고 개선하여 바람직한 영어과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제 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의사소통 기본표현을 언어 네 기능의 균형 있는 학습을 통해 습득하도록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2.1.1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구현을 위하여 현실 적합성을 제고한 수준별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선택과목 간 수준별 차별화로 진로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과목 및 교육 내용 설계를 강조하였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어휘 수를 증대시키고 학년별 어휘 수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의사소통 기능'의 예시문을 조정 또는 추가하였다. 문화 관련 내용의 경우 언어 기능, 언어 재료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수준별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명료화하고, 활동내용을 구체화했음은 물론 정보통신 기술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평가의 경우 표현기능 성취 기준을 우리나라 영어교육 여건을 고려해 현실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성격

- 제7차 교육과정의 영어와 영어 과목의 필요성 부분을 보강
- 수준별 학습에 따른 지도 방법과 운영 등의 제반 사항을 조정

나) 목표

- 총괄 목표 아래 초등목표와 중등 목표를 분리하여 목표 진술을 명확히 진술
 - ◎ 초등: 정의적 목표 강조
 - ◎ 중등: 인지적 목표강조
- 중등 영어과 교육목표에서 초등 영어의 목표와 내용의 기반 위에서 중학교 영어 교육이 시작함을 강조

다) 소재

- 문화를 소재 항목에 포함시켜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강
- 문화에 관련된 항목을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 생활양식 등을 반영

라) 어휘

- 학년별 신출 어휘 수 일부 조정 및 소폭 증대
- 학교급간(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습 부담 완화

마)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및 언어 형식

- 담화특성, 의사소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기능 분류를 조정
-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의 제시 방법 보완
- 언어형식 중 의사소통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내용 수정 보완

바) 성취기준

- 중등영어의 성취기준을 학기별(a, b)에서 학년단위로 통합하고 그 위계 조정
- 성취 기준에 상황(situation)과 화제(topics) 개념을 도입하여 성취기준 구체화
- 표현기능 관련 성취기준을 우리나라 영어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성취기준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
- 심화과정 성취기준을 삭제하고 기본과정 성취기준으로 일원화

사) 교수·학습 방법

- 학교급별로 교수·학습방법과 내용을 제시
- 수준별 수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 ◎ 하위 항목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구분하여 제시
 - ◎ 수준별 수업의 학습 유형, 학습 활동, 학급 조직 방법 등의 기본적 원칙 언급
 - ◎ 수준별 학습을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방안을 보완

아) 평가

-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관련 내용을 삭제
- 평가 지침과 평가 상의 유의점을 분리하여 제시
 - ◎ 평가지침은 초·중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내용
 - ◎ 평가 상의 유의점은 평가를 통한 교수·학습 제고 내용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 7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제 7차와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비교

	제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의 필요성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의 필요성, 영어 과목의 필요성 보강 - 수준별 교육과정 관련 내용 삭제 - 수준별 수업의 자율적 운영 권장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최종 단계의 영어교육 목표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목표 아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목표 분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재료를 소재, 문화, 언어, 어휘, 단일 문장의 길이로 구분 - 학기별 성취기준 구분 - 목표와 학습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성취기준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재료 중 문화 항목을 소재 포함 - 학년 별 새로운 어휘수의 소폭 증대 - 의사소통 기능 조정 및 예시문 수정·추가 - 초등영어 문자 언어의 도입 시기를 3학년 2학기로 앞당기되 음성 언어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 - 중등 영어의 성취 기준을 학년 단위로 통합, 위계 조정 - 성취 기준 하향 조정, 기본 심화과정을 통합하여 제시 - 일부 성취기준에 상황과 화제 개념 도입으로 내용 구체화 - 성취 기준 상의 심화 과정 내용 삭제 - 문자 언어의 도입 시기를 3학년 2학기 앞당기되 음성 언어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
교수 학습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수 학습 방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학습 방법의 하위 항목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구분 제시 - 수준별 수업과 관련한 내용 제시에서 학습 유형, 학습활동, 집단 편성 등의 기본적인 원칙 언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평가 관련 사항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관련 내용 삭제 - 평가 지침과 평가 상의 유의점을 분리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으로 주목할 점을 두 가지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개선이고 둘째는 의사소통 기능 교육과 문화교육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영어 학습활동책의 도입과 관련된 수준별 교육과정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1.2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영어과 수준별 수업

학습자의 개인차를 무시한 종전의 획일화된 교육과정 및 학습방법은 학업 성취속도가 빠른 상위권 학생에게는 지루함을 주고 학업 성취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에게는 좌절감을 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 자신에게 알맞은 속도로 학습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미흡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목표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우선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학습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습 지도 방법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에게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데 필요한 언어재료와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는 쪽으로 수준별 교육에 대한 지침을 바꾸었다. 이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국가 교육과정에 기본/공통 내용 외에 수준별 심화내용이나 보충내용을 제시하는 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본/공통 내용만을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¹⁾ 즉, 동일한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되, 학교 수준에서 학생들의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교수·학습 방법으로 수준별 수업이나 수준별 이동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격’ 항목에서 수준별 교수·학습을 강조하고, ‘교수·학습 방법’ 항목에서 수준별 교수 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1)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에서 심화 내용 제시는 폐지되면서 수준별 교육의 차별화 방안을 내용 요소 차별화 보다는 수업 방식의 차별화, 동일 내용의 심화 정도의 차별화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명시하고 있다. 먼저 개정안의 수준별 수업에 대한 지침을 보면, 학교공통지침²⁾에서 수준별 수업을 위한 추가시간이나 학습 집단 편성에 관한 내용을, 단위 학교별 수준별 수업의 운영 고려 사항³⁾에 있어서는 수준별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특별 보충 수업에 관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교수·학습 방법상에서 수준별 학습을 단위학교에서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등학교 수준별 교수·학습 방법 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상의 수준별 수업내용

□ 교수·학습 방법
<p>2. 수준별 수업</p> <p>학생들의 능력과 흥미에 따라 수준별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구안한다. 중등학교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학급 내 혹은 학급 간 수준별 수업을 하도록 운영한다.</p> <p>2) 중등학교</p> <p>(1) 수준별 학급은 학교 실정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편성하도록 한다.</p> <p>(2) 학습자의 능력, 흥미, 인지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동기 유발 방법과 학습 활동을 구안한다.</p> <p>(3) 개인차에 따라 수준에 맞는 학습 활동이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년별로 기본 교과서나 보조교재를 다양한 수준으로 개발한다.</p> <p>(4) 수준별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때는 성취 수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언어 기능, 어휘, 언어 형식 등을 학생 수준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사용하고, 이에 맞추어 교수 방법을 다양화한다.</p> <p>(5) 개인별, 소집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며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p> <p>(6) 심화 학습에서는 확장된 교재를 이용하여 개별 학습, 자기 주도 학습, 협동 학습을 권장하고, 보충 학습에서는 학습 결손 요인을 파악하여 기본 과정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 방법을 구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2) ①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는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재량활동에 배당된 시간 등 별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다.” (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3) ① “교과용 도서 이외의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준별 수업을 적용할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특히 개정안에서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 폐지되었는데 이는 재이수(유급) 및 월반 등이 교육 현장의 여건상 적용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의 특징을 비교해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 제 7차와 개정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의 특징 비교

	제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주요 특징 및 편성 운영 상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 교사가 수준별 교수·학습자료 직접 개발·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삭제 ·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보충, 기본, 심화의 수준별 수업으로 전환 · 수준별 교육은 교수·학습방법상의 원리로 재배치 · 교실/교사 중심의 수준별 ‘수업’ 강조 · 학급 간 수준별 이동수업 권장 · 국가차원에서 수준별 보조교과서 개발 및 제공

앞에서 고찰했듯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국가 교육과정에서가 아닌 단위 학교에서의 수업 방식의 차별화 및 동일 내용의 심화정도의 차별화로 수준별 수업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으며 수준별 수업 관련 지침은 ‘교수·학습 방법’ 항목에 제시되어 있다.

2.1.3 수준별 보조교과서로서 학습활동책의 역할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수준별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가 교사들이 수준별 수업 자료를 직접 개발해야 하는 문제점 때문이다. 이점을 고려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위한 보조교과서인 영어 학습활동책을 개발 보급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수준의 달성에 필요한 필수 학습 요소는 기본교과서에 포함시키고, 다양한 수준의 심화

· 보충 학습 내용은 수준별 보조교과서인 학습활동책에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학습활동책은 교과서 내용과 연계하여 수준별 학습 활동자료, 자기 주도적 학습에 필요한 자료,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 문화, 퀴즈 등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활동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박인정(2008: 36-37)은 그 역할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학습활동책은 다양한 활동과 문제, 학습 내용의 이해를 돕는 자세한 설명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교과서의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학습활동책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학습활동책의 수준별 학습 자료를 학습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게 수행함으로써 학습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학습활동책은 수준별 수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학습활동책은 교과서의 내용과 연계한 학습 활동 자료를 보충, 기본, 심화의 수준으로 제시하는데 이러한 학습활동책은 교과서가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준별 수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또한 학습활동책의 각 보충단계, 기본단계, 심화단계에 대한 구성과 내용은 출판사마다 다소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고 간주될 수 있다(경기도 교육청, 2008).

<표 4> 학습활동책의 각 수준별 특징

보충 (supplementary)	기본 (basic)	심화 (advanced)
쉽고 재미있는 활동과 반복연습을 통해 단원의 학습목표의 도달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쉬운 어휘를 활용하고 다양한 예문을 통해 목표 언어 형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각자의 경험을 말하는 유의적인 연습을 통해 통제적인 과업 활동이 의사소통으로 이어지도록 함.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단원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고 교과서 수준의 어휘와 목표 언어 형식을 활용하여 유의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간단한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적용 능력을 키워나감.	기본 학습 내용을 응용한 다양한 심화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유창성을 겸한 영어 사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이제 구체적인 학습활동책의 듣기 활동의 예를 통해 수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다.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A학습활동책의 보충, 기본, 심화 단계에서 듣기 활동의 일부를 발췌해서 보겠다. 먼저 보충단계의 듣기 활동으로 내용을 듣고 빈칸에 들은 내용을 받아 적는 활동이다.

보충 Figure B Out

2. 다시 듣고 빈칸에 들은 말을 써 봅시다.



First, do your daily work. Don't _____ assignments. If you miss something because you were out of class, try to _____ it _____ right away.

Second, study _____. It is not good to _____ studying until the night before a test. _____ your class material on a regular basis.

(A학습활동책: p.9)

다음의 듣기 활동은 기본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충단계와 같은 듣기 입력 자료를 사용하나 텍스트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진 것이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기본 Figure B Out

2. 다시 듣고, 빈칸에 들은 말을 써 봅시다.



First, do your daily work. Don't _____ assignments. If you miss something because you were out of class, try to _____ right away. Your school work is like a long race: if you fall behind, you'll just have to work harder to _____.

Second, study regularly. It is not good to _____ studying until the night before a test. Review your class material on a _____. A study schedule can be helpful. _____ time to study every week and mark it on a planner so you can manage your study time.

(A학습활동책: p.14)

마지막으로 심화단계에서 받아쓰기 활동은 보충, 기본 단계와는 달리 단어 단위가 아니라 일련의 구 단위로 빈 칸을 채워 넣도록 하고 있다.

심화 Figure It Out

2. Listen again and fill in the blanks.

Studying is never fun. But you're a lot less likely to feel test stress if you are _____ for the test.

Here's how.

First, do your daily work. _____ assignments. If you miss something because you were out of class, _____ right away. Your schoolwork is like a long race: if you _____, you'll just have to work harder to catch up.

Second, study regularly. It is not good to put off studying until the night before a test. Review your class material _____. A study schedule can be helpful. _____ time to study every week and mark it on a planner so you can manage your study time.



(A학습활동책: p.19)

이상의 수준별 듣기 활동들은 동일한 듣기 입력 자료를 사용하되, 텍스트의 길이와 빈칸을 채워 넣는 단위에 있어서 난이도를 달리하여 듣기 활동이 수준별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의를 듣고 조언을 선택하는 또 다른 듣기 활동의 예를 보도록 하겠다. 먼저 보충 단계에서는 강의를 듣고 주어진 그림의 상황과 화자의 조언을 연결하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보충 Figure It Out

1. 강의를 듣고, 그림의 상황과 화자의 조언을 짝 지어 끊시다.



- a. Manage your study time.
- b. Be well prepared for the test.
- c. Make up your schoolwork right away.

(A학습활동책: p.9)

이어서 기본 단계의 듣기 활동에서는 영어로 제시된 문장을 제공하여 상황과 그 상황에 알맞은 조언을 짚기도록 하고 있다.

기본 Figure B Out

1. 강의를 듣고, 다음의 문제 상황과 화자가 말한 조언을 알맞게 짝 지어 붙시다.

- | | | |
|--|---|------------------------------|
| (1) I often feel test stress. | • | • Manage your study time. |
| (2) I missed my class because I was sick. | • | • Prepare well for the test. |
| (3) I often study until late at night before a test. | • | • Make it up right away. |

(A 학습활동책: p.14)

마지막으로 심화 단계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듣고 그 상황에 알맞은 조언의 내용을 직접 영어로 적도록 하는 활동을 주고 있다. 심화단계에서는 지시문 또한 영어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심화 Figure B Out

1. Listen and give the advice you've heard for each situation.

- | | | |
|--|---|-------|
| (1) I often feel test stress. | ⇒ | _____ |
| (2) I missed my class because I was sick. | ⇒ | _____ |
| (3) I often study until late at night before a test. | ⇒ | _____ |

(A 학습활동책: p.19)

앞에서 다룬 세 가지 듣기 활동은 동일한 내용을 다루되 시각자료의 제공 여부와 쓰기와의 통합 활동 여부에서 수준단계별로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습활동책에 제공된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듣기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2 의사소통 중심 영어 교육에서 듣기의 중요성

영어 교육에 있어 듣기 지도는 영어 교육의 구체적 목표와 그 강조점 등에 따

라 그 위상이 변해 왔다. 예를 들어 문법 번역식 교수법(Grammar-Translation method)에서는 문법적 지식을 암기하고 이러한 문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읽고 모국어로 번역하고 이해하는 일련의 활동에 중점을 둬으로써 듣기 기능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듣기가 영어 교육에 있어 비로소 중요성을 띠기 시작한 것은 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에서였으나 듣기의 역할은 수동적이며 말하기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했다. 영어 교육에서 듣기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1980년대에 Krashen(1982)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의 이해 가능한 입력 자료(comprehensible input)에 관한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언어 입력 자료의 역할을 담당하는 듣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하여 듣기가 발화에 선행될 때 언어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는 전신반응 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과 자연적 교수법(Natural Approach)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영어 사용 능력 측면에서 듣기를 강조한 것은 의사소통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이 대두되고 난 후 이다. 예컨대 Morley(1991: 87)는 의사소통에서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듣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영어를 배우는 초기 학습자들은 먼저 듣기에 중점을 두어 학습한 후 듣기 능력이 발달된 후에 말하기, 읽기, 쓰기 등 다른 기능을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는 듣기를 청자가 문맥에서 가져온 정보와 선형지식으로부터의 단서를 이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여 과거에는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수동적인 과정으로 여겨졌던 듣기 과정과는 차이를 두었다.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영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삼은 후 듣기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일례로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을 영어과의 목표로 정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 영역에 듣기 평가 문항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듣기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⁴⁾ 또한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관해 음성교육을 우선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음성언어는 듣기와 말하기를 의미하지만 구두 의사소통에서는 말하기 능력에 앞서 듣기 능력이 먼저 신장되어야 하므로 이는 듣기 교육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음성 언어

4) 1994년에 처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에 듣기 평가 문항이 도입되었다.

교육에 치우친 나머지 문자 언어 교육이 도외시되고 상급학교와의 연계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문자언어의 도입 시기를 조금 앞당기게 되었다.⁵⁾

듣기 교육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말하기 기능과의 통합 활동이다. 이는 의사소통 상황의 특징 상 청자가 단순히 듣는 입장이 아니라 담화 상에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Brown(1994: 236)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도된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의미의 교섭이 이루어지며 청자와 화자의 역할이 수시로 바뀐다고 하였다.

종합하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영어 교육의 목표로 할 때 의사소통 상황에서 듣기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듣기 교육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청자의 역할이 단순히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상호 협력하여 담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듣기와 말하기 교육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2.1 듣기 과정

듣기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상향식 듣기 과정(bottom-up process), 하향식 듣기 과정(top-down process), 상호작용식 듣기 과정(interactive process)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듣기 과정은 상향식 듣기 과정과 하향식 듣기 과정의 어느 한 가지 과정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과정이 모두 존재하여 서로 보완하여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학습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영어 학습의 초기부터 상호작용식 듣기 과정을 적용할 수 없기에 상향식 듣기 과정의 듣기 활동부터 시작하여 하향식 듣기 과정과 상호작용식 듣기 과정에 이르면서 듣기 능력을 신장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Peterson(1991)의 이론을 중심으로 상향식 듣기 과정, 하향식 듣기 과정, 상호작용식 듣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5)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문자언어 학습 시기를 초등학교 3학년 2학기로 앞당겼다.

2.2.1.1 상향식 듣기 과정

상향식 듣기 과정이란 청자가 구두 담화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들어오는 언어자료인 소리, 단어, 구, 절, 문장 등을 단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으로 Peterson(1991: 108-109)은 상향식 듣기 과정에서 학습자는 언어형태에 초점을 두고 선택적 듣기를 한다고 하였다. 선택적 듣기란 음조, 새로운 음, 비슷한 음, 어휘와 구, 문법 형태 등의 구조체계와 세부사항을 청취하는 기술을 뜻한다. 이렇듯 청자의 어휘와 문법 실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상향식 듣기 과정은 언어 형식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듣기 과정을 상향식 과정으로 본 관점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눈에 보이는 언어적 지식만을 강조하고 인간내면의 인지작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2.1.2 하향식 듣기 과정

하향식 듣기 과정은 구두 담화문에 대한 배경 지식, 상황의 사전 지식, 문맥, 등을 활용하여 담화의 전반적 내용과 흐름을 예견하고 구두 언어를 들으면서 확인하는 과정으로 Peterson(1991: 108-109)에 의하면 하향식 듣기 과정에서는 세부 사항에 초점을 두는 상향식 듣기 과정과 달리 전반적인 의미에 초점을 두는 포괄적 듣기 기술이 사용된다고 한다. Carrell & Eisterhold(1987: 221)은 하향식 듣기 과정에 대해 언어체계가 보다 상위의 일반적 선형지식에 근거하여 일반적 예상을 한 뒤 언어 입력 자료를 탐색하여 부분적으로 충족된 상위 선형지식에 적합한 정보를 얻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급단계의 언어학습자가 하향식 과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초보단계의 학습자도 그 과정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향식 듣기 과정과 관련하여 정보가 유의미한 패턴으로 결합되어 마음속에 있는 기존의 의미구조와 연결될 때 언어 학습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학자는 Ausbel⁶⁾이다. 그에 의하면 새로운 정보를 이미 존재하는 인지적 개념에 연결하는 과정인 유의미한 과정을 통해 학습이 일어나며 새로운 언어자료는 인지영역에 들어와 보다 포괄적인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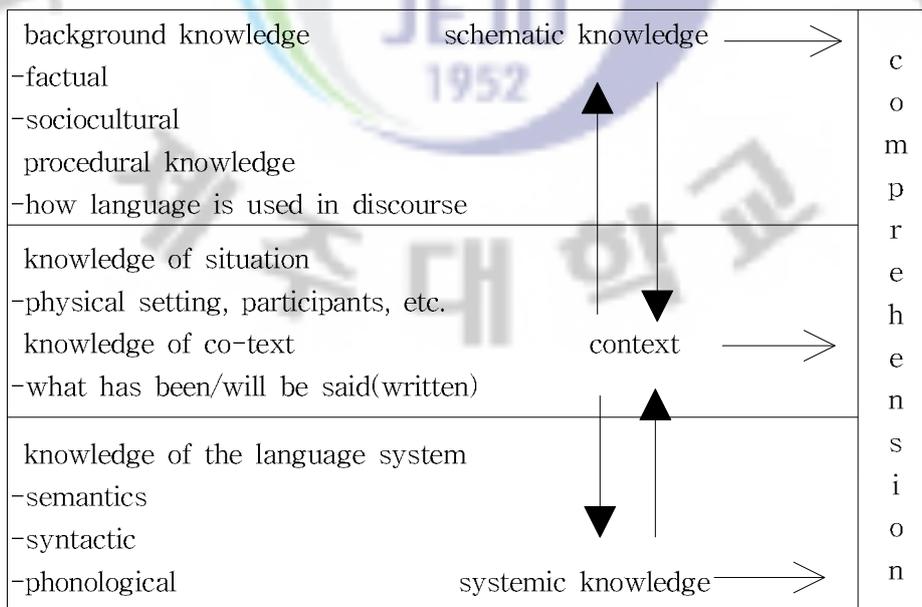
6) Brown(1994: 79-80)에서 재인용

과 상호작용하고 그 안에 적절히 포섭(subsume)된다고 한다.

2.2.1.3 상호작용식 듣기 과정

듣기 이해를 상향식 듣기 과정과 하향식 듣기 과정이 서로 상호 보완하여 작용하는 과정으로 본 것을 상호작용식 듣기 과정이라 한다. 하향식 과정만으로 듣기 이해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상향식 듣기 과정과 하향식 듣기 과정이 동시에 상호작용하면서 듣기 이해가 이루어진다는 인식에서 상호작용 모형이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Peterson(1991: 108-109)은 듣기 과정에서 상향과 하향과정이 모두 작용되며 이 중에서 한 과정에 의한 이해가 부족할 때는 다른 과정에 의존함으로써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구두 담화문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때는 상향식 듣기 과정을,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거나 확인하는 정도의 이해가 필요한 경우는 하향식 듣기 과정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듣고 이해할 때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언어적 지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 지식이 필수적이고 하향식 과정과 상향식 과정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미가 형성된다는 비슷한 입장은 Anderson & Lynch(1988: 11-15)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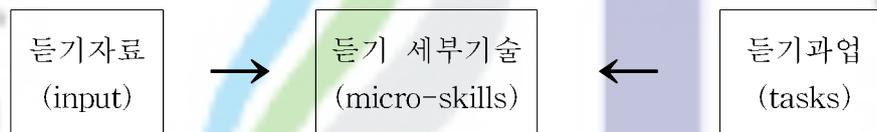
<그림 1> 듣기 과정 (Anderson & Lynch, 1988)



2.2.2 듣기 세부 기술

의사소통을 위한 듣기 능력을 위해서는 음운원리와 문법체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요구된다. Richards(1987: 170-171)에 따르면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세부 듣기 능력(sub skill)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학습 자료와 과업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제시함으로써 듣기 세부능력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림 2>는 교사가 듣기 학습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언어뿐만 아니라 특정 기능 습득을 위한 적절한 활동을 선별하여 학생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듣기 세부 기술과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2> 듣기자료와 듣기 과업 조작을 통한 듣기 세부기술 개발
(Richards, 1987)



2.2.2.1 Richards(1987)의 듣기 기술

Richards(1987: 167-168)는 듣기 과정과 구어담화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화를 할 때 듣기에 필요한 세부기술 33가지를 제시했다. 담화의 특성을 중심으로 듣기 세부 기술을 제시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 서로 다른 길이의 언어 뭉치를 단시간 기억하기
- 목표어의 변별적 소리들을 구별하기
- 어휘의 강세유형 인식하기
- 리듬 구조 인식하기
- 발화구조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강세와 억양의 기능 인식하기
- 강세 받는 단어와 강세 받지 않는 단어 찾아내기

- 축약된 형태의 어휘 식별하기
- 단어의 경계 구별하기
- 목표어의 전형적인 단어 배열 유형 인식하기
- 담화의 주요 화제에 사용된 어휘 인식하기
- 키워드 찾아내기
- 문맥 내에서 단어 의미 추측하기
- 문법적 기능어 인식하기
- 주요 동사유형 및 장치 인식하기
- 담화에서의 결합장치(cohesive devise) 인식하기
- 문법 단위나 문장의 생략형태 인식하기
- 문장 구성 성분 인식하기
- 주요 요소 및 기타 요소 식별하기
- 다른 문법적 형태로 표현된 동일한 의미 감지하기
- 상황, 참여자, 목표에 따라 발화의 의사소통적 기능 인식하기
- 목적, 목표, 상화, 절차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 사용하기
- 기술된 사건으로부터 결과 예측하기
- 사건간의 연관성 추론하기
- 사건의 원인과 결과 연역하기
-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내포된 의미 구별하기
- 둘 이상의 화자의 대화를 듣고 화제와 일관된 구조를 찾아 이를 재구성하기
- 일관성 담화 표지를 인식하고 주요점, 부수요점, 기존 정보, 새 정보, 일반화, 예시 등의 관계 찾기
- 여러 다양한 속도의 말 이해하기
- 휴지 실수, 교정을 포함한 말 이해하기
-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얼굴표정, 부차언어 및 기타 단서 활용하기
- 다양한 듣기 목적에 맞게 듣기 전략 조정하기
-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나 몸짓언어로 알리기

2.2.2.2 Peterson(1991)의 듣기 기술

Peterson(1991: 114-121)은 듣기 활동에서 목표로 하는 기술을 초급, 중급, 고급의 세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상향식 과정, 하향식 과정, 상호작용적 과정으로 구분하여 듣기 세부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1) 초급단계

(1) 상향식 과정

- 문장에서 억양(intonation contour)식별하기
- 음소 식별하기
- 형태소 어미 식별하기
- 어휘 인식: 텍스트 속에서 단어를 인지하여 세부사항 답하기
- 정상적 문장 어순 인식하기

(2) 하향식 과정

- 정서적 반응 식별하기
- 문장의 요지 파악하기
- 화제(topic) 인지하기

(3) 상호 작용적 과정

- 연관된 단어의 의미망 구성하기
- 친숙한 단어를 인지하고 범주에 연관하기
- 지시대로 따라 하기

2) 중급단계

(1) 상향식 과정

- 빠른 발화형태를 인지하기
- 강세 음절 찾기
- 축약된 음절을 갖고 있는 단어 인지하기
- 발화흐름에서 연결어휘 인식하기

- 발화흐름에서 관련된 세부내용 인지하기

(2) 하향식 과정

- 효율적인 듣기 전략을 위해 담화구조 분석하기
- 화자 혹은 화제를 식별하기
- 화제와 동기 평가하기
- 주제와 세부내용 식별하기
- 추론하기

(3) 상호 작용적 과정

- 발화의 스타일과 음조 식별하기
- 일상회화에서 생략된 문법표지 인식하기
- 축소형 지식을 활용하여 발화의 의미 명백히 하기
- 상황을 활용하여 예측하기
- 예측한 내용 확인하기
- 상황을 이용하여 예측하고, 상향식 과정을 통해 빠진 어휘를 인식한 뒤 실제 들은 내용과 예측한 내용 비교하기
- 불완전한 지각자료와 문화적 배경지식을 사용하여 텍스트 완전히 이해하기

3) 고급단계

(1) 상향식 과정

- 문장의 강세와 음량 특징을 사용하여 중요 정보 찾아 노트 필기
- 강의 텍스트와 문장 특징 인식하기
- 강의 텍스트의 문장구성 실마리 인식하기
- 어휘 및 초분절 표지 인식하기
- 세부 정보의 요점 파악하기

(2) 하향식 과정

- 서론 부분을 활용하여 강의의 초점과 방향을 예측하기
- 강의 원고 활용하여 다음 부분의 내용을 예측하기
- 강의 주제 파악

(3) 상호 작용적 과정

- 세부사항을 사용하여 내용의 정확한 예측을 결정하기
- 세부사항의 분석을 통해 강의의 주제 결정하기
- 평가하는 내용을 찾아 추론하기
- 교과서와 강의내용 지식 사용하여 빠진 정보를 채우기
- 교과서와 강의 내용 지식 활용하여 강의자의 잘못된 진술을 발견하고 의도하고자 하는 생각에 보충하기

2.2.2.3 Brown(1994)의 듣기 기술

Brown(1994: 241)은 Richards(1987)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듣기 세부기술을 분류 제시했다. 여기에는 문장계층에서 듣기 기술과 담화 계층에서 듣기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 여러 길이의 언어 문치를 단기기억에 저장
- 변별음 구별
- 강세, 리듬, 억양 등의 인식
- 축약 형태 인식
- 어휘 경계 구별, 핵심어 인식, 어순에 따른 의미해석
- 서로 다른 속도와 길이로 된 말 이해
- 여러 언어수행 변이를 포함한 말의 이해
- 어휘의 문법적 분류(명사, 동사), 문법체계(시제, 일치), 문형, 규칙, 생략형 등의 인식
- 문장 구성성분의 인식. 중요 구성성분과 그렇지 않은 구성성분의 구별.
- 한 의미를 여러 문법형태로 나타낼 수 있음을 인식
- 구어에서 담화 표지 특히 결합장치의 인식
- 여러 맥락에서 다른 발화의 의사소통적 기능 인식
- 실제 세상지식을 이용하여 추론
-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 예측, 사건 간 연관성 추론, 인과관계도출

- 또는 주요점, 부주요점, 신정보, 기존정보, 일반화, 예시 등의 관계 포착
- 표면 의미와 함축된 의미의 구별
- 비언어적(nonverbal) 단서(얼굴표정 및 몸짓언어)를 이용하여 의미 해석
- 여러 듣기 전략(키워드 포착, 맥락을 이용한 의미 추측, 도움 요청하기, 이해했거나 이해하지 못했음을 나타내기)을 개발하고 사용

2.2.2.4 White(1998)의 듣기 기술

White(1998: 7-9)는 듣기 기술을 크게 다섯 개의 큰 범주로 나눈 뒤 이를 다시 여러 하부기술(sub-skill)로 나누고 있다. 다섯 개의 범주에는 지각 기술(perception skill), 언어기술(language skill), 세상 지식 활용(using knowledge of the world)기술, 정보처리(dealing with information)기술, 화자의 상호작용(interaction)기술 등이 포함된다.

(1) 지각기술

- 각각의 개별음 인식
- 음간의 차이 구별
- 빠른 말에서 음의 축소형(reduced form) 찾아내기
- 강세 있는 음절 찾아내기
- 발화된 문장에서 강세 받은 어휘 찾아내기
- 억양 패턴 인식하기

(2) 언어기술

- 개별 어휘와 어휘군(group)을 찾아내어 가능한 의미 형성하기
- 화자의 말을 조직적으로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담화표지(discourse marker) 찾아내기

(3) 세상 지식 활용 기술

- 의미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 여러 어휘군(group of words)을 비언어적

특성에 연결하기

-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화자가 말하는 바를 추측하기
- 특정 상호작용이 취하는 전형적 유형(pattern)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화자가 하는 말 추측하기

(4) 정보처리 기술

- 전반적 요지(gist) 이해하기
- 요점(main points) 이해하기
- 세부 사항(예: 기차시간) 이해하기
- 명확히 진술되지 않거나 빠진 정보 추론하기

(5) 화자와 상호작용 기술

- 말하는 속도 및 강세 차이와 같이, 화자마다 달리 나타나는 여러 변수 (variation)이해하기
- 화자의 의도 인식하기
- 화자의 기분이나 태도 알아내기
- 말하나 순서나 화제를 바꿀 때 화자의 신호 인식하기
- 화자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예측하기

Ⅲ. 학습활동책의 듣기 활동 분석

본 장에서는 학습활동책의 수준별 듣기 활동을 듣기 과정 및 듣기 세부기술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교육적 시사점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3.1 분석 대상

먼저 연구대상으로 삼은 각 학습활동책을 출판사별로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A, B, C, D, E로 분류하였다. 연구 대상이 되는 해당 학습활동책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 분석 대상 학습활동책 목록

학습활동책	저자	출판사
A	이완기 외 6인	금성
B	장영희 외 5인	능률
C	김성곤 외 8인	두산
D	이창봉 외 6인	디딤돌
E	이인기 외 4인	천재

3.2 분석 범위

5종의 학습활동책에 나타난 듣기 활동의 주 분석 대상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보충, 기본, 심화의 수준에 관한 명칭은 각 학습활동책마다 다르며 듣기 능력만을 위한 활동 뿐 만 아니라 듣기와 말하기, 듣기와 읽기, 듣기와 쓰기를 연습하는 통합 활동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표 6> 출판사별 학습활동책의 듣기 활동 분석 범위

순서	출판사	듣기 활동 분석 범위	
A	금성	Figure It Out	보충
			기본
			심화
B	능률	Listen In	Basic
			On level
			Challenging
C	두산	Listen and Talk	A
			B
			C
D	디딤돌	Listen & Speak	Basic
			Intermediate
			Advanced
E	천재	Listening	Orange Zone
			Green Zone
			Blue Zone

3.3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 학습활동책의 수준별 듣기 활동의 분석을 위해 설정한 첫 번째 기준은 듣기 과정이다. 먼저 Peterson(1991)이 제시하고 있는 상향식 듣기 과정, 하향식 듣기 과정, 상호작용식 듣기 과정으로 듣기 활동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상향식 듣기 과정, 하향식 듣기 과정, 상호작용식 듣기 과정의 분포를 통해 수준별로 듣기 활동이 갖는 특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함이다. 제 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도 언급했듯이 상향식 듣기 과정은 어휘 및 문법적 지식에 초점을 맞춘 듣기 과정이고 하향식 듣기 과정은 언어 내용보다 선형지식 및 배경지식의 활용이 강조되는 두드러진 듣기 활동이다. 상호작용식 듣기 과정은 상향식 듣기 과정과 하향식 듣기 과정이 모두 이용되는 활동으로 Peterson(1991)에 의하면 초급자일수록 상향식 듣기 과정에 더 의존하게 되고 고급자일수록 하향식 듣

기 과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에 듣기 활동의 세 가지 듣기 과정의 비중을 통해 수준별로 듣기 활동이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두 번째 분석 기준은 듣기 세부 기술로 수준별로 듣기 활동이 어떠한 듣기 세부 기술을 선호하며 특정 세부 기술에 편중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기준이 되는 듣기 세부 기술은 앞에서 다룬 Richards(1987), Peterson(1991), Brown(1994), White(1998)등을 참고로 하여 위의 학자들의 듣기 세부 기술 중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중요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것을 중심으로 새로 작성되었다. 분석 기준이 되는 세부 기술 중 ‘듣고 다양한 행동하기’는 상향식 듣기 과정과 하향식 듣기 과정의 세부기술을 모두 포함하면서 동시에 여러 다른 언어행동을 복합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성된 세부기술로 설정하였다. 주로 다른 언어 기능과의 통합 활동에서 요구되는 세부기술로 대표적 활동에는 ‘듣고 구두로 대답하기’, ‘듣고 대답을 글로 쓰기’, ‘들은 내용 요약하기’, ‘듣고 틀린 내용 고쳐 쓰기’ 등이 있다. 분석에 사용된 세부 기술은 <표 7>에 나타나 있다.

<표 7> 분석에 사용한 듣기 세부 기술 기준표

상향식	변별음 구별
	초분절 음소 인식
	주요 어휘 인지
	언어 뭉치 기억
	세부사항 이해
하향식	발화의도 인식
	빠진 정보 추론
	정서 반응
	요지 이해
	상황 식별
상호작용식	언어수행변이 이해
	예측하기
	듣고 다양한 행동하기

3.4 분석 결과

먼저 5종의 학습활동책의 수준별 듣기 활동을 종합하여 듣기 과정과 듣기 기술에 의해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기에 앞서 각각의 듣기 세부 기술에 의한 분석의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4.1 분석의 실례

‘변별음 구별’은 보충단계의 듣기 활동에서 많이 나타나는 듣기 세부 기술 중 하나로 기본단계와 심화단계에서는 전혀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의 듣기 활동은 D학습활동책의 보충단계에 속하는 활동으로 내용을 듣고 알맞은 단어를 고르게 함으로써 개별 음소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단어만 제시된 것이 아니라 단어를 포함한 문장이 주어져 상황적 맥락 속에서 변별음을 구별하도록 하고 있다.

A 다음을 듣고, 밑줄 친 부분 중 들은 단어에 ○ 표를 해 봅시다.

1. What's on / up?
2. Last night I had an argument / agreement with my parents.
3. What should / would I do if they keep pushing me?
4. They'll understand you in the further / future.
5. Thanks for your kind words. I appreciate / appropriate it.

(D학습활동책: p.210)

또 다른 예로 A학습활동책의 나타난 듣기 활동을 보면 해당 단어를 포함한 전체 단락을 제시하여 관련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2. 다시 듣고, 각 괄호 안에서 들은 말을 골라 봅시다.

First, draw the shape of a cloud. Use circular (motion / machine) to draw the outline. Second, add some additional details into the cloud. Use the same circular style. Next, you can add in some shading. Finally, use your finger and (rob / rub) the pencil lead together to help (mix / mess) the shading

(A학습활동책: p.209)

‘주요 어휘 인지’는 보충단계의 듣기 활동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제시된 듣기 세부 기술로 분석되었으나 ‘변별음 구별’과 마찬가지로 기본단계와 심화단계에서는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은 C학습활동책의 듣기 활동으로 내용을 듣고 해당지역의 날씨를 묻는 질문에서 날씨를 표현하는 여러 단어 중에서 알맞은 단어를 고르게 함으로써 관련 단어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1. 남자가 가려고 하는 곳의 겨울 날씨에 해당하는 것에 모두 동그라미해 봅시다.



(C학습활동책: p.71)

B학습활동책의 듣기 활동은 대화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선물로 준비한 물건을 고르도록 하는 활동으로 선물에 해당하는 어휘를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1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로 짝지어진 것은?

- a. watch—ring
- b. watch chain—hairpin
- c. scarf—hairpin

(B학습활동책: p.48)

‘언어 문치 기억’은 보충단계와 기본단계의 듣기 활동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들은 내용을 빈 칸에 적는 활동으로 받아쓰기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

음의 듣기 활동은 짝활동으로 진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대화를 듣고 빈 칸에 해당하는 단어를 적은 후 짝과 그 내용을 말하는 통합 활동 유형으로 제시되어 있다.

A • Pair Work 🗣️ 대화를 들으며 빈칸을 채우고 짝과 대화해 봅시다.

1 Dr. Johnson? Hi, I am Tina and I don't feel very well these days. I always feel _____ and _____ at school.

2 I am sorry to hear that. I wonder if you are _____ your health. Do you eat a _____ ?

3 No. I _____ have some snacks at the school store for breakfast.

4 Do you get _____ and do exercise?

5 Well, I _____ until late at night. I feel too tired to move my body at school.

6 I think you should make it a _____ to have well-balanced breakfast, avoid eating _____ and get enough sleep. You should also exercise regularly.

(B학습활동책: p.124)

‘세부 사항 이해’는 기본단계의 듣기 활동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듣기 세부 기술로 보충단계와 심화단계에서는 그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학습활동책의 듣기 활동은 내용을 듣고 보기로 주어진 문장이 그 내용에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를 적도록 하고 있다.

1. Listen to the dialog and write T(true) or F(false).

- (1) Peter saw *Swan Lake* with Jenny.
- (2) Peter thinks *Swan Lake* is romantic.
- (3) Jenny agrees with Peter's opinion about *Swan Lake*.

(C학습활동책: p.109)

‘발화 의도 인식’은 보충단계의 일부 학습활동책에서만 나타나고 있으며 B학습활동책에서는 여성이 요청하는 바를 고르게 하는 활동을 통해 관련 듣기 세부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B  대화를 듣고, 여자가 요청하는 바를 골라 봅시다.

- a. 파티를 끝낼 것 b. 음악 소리를 줄일 것 c. 드럼을 그만 칠 것

(B학습활동책: p.86)

‘빠진 정보 추론’은 주로 심화단계의 듣기 활동에서 찾을 수 있는 듣기 세부 기술로 B학습활동책에서는 여성의 끝맺는 말로 알맞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2 What is the best ending to her speech?

- a. she should not be so shy
b. we care about her and that we are her friends
c. we are going to have a surprise party

(B학습활동책: p.114)

다음의 듣기 활동에서는 대화를 듣고 내릴 수 있는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론하도록 하고 있다.

C  Listen and choose the statement that we can conclude from the dialogue.

- a. They both love outdoor activities.
b. The woman thinks they will have nice weather on the weekend.
c. It is likely that they will go to the concert together.

(B학습활동책: p.172)

‘정서 반응’은 보충단계에서 약간 나타나는 듣기 세부 기술로 E학습활동책의 Tom이 할머니에게 죄송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듣기 활동에서 나타나 있다.

A What does Tom feel sorry about?

- a. not having picked up his grandmother at the airport
- b. not having written to his grandmother for a long time
- c. not having carried his grandmother's bag from the station

(E학습활동책: p.194)

‘요지 이해’는 기본단계의 듣기 활동에서 주로 나타나는 듣기 세부 기술로 E학습 활동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 듣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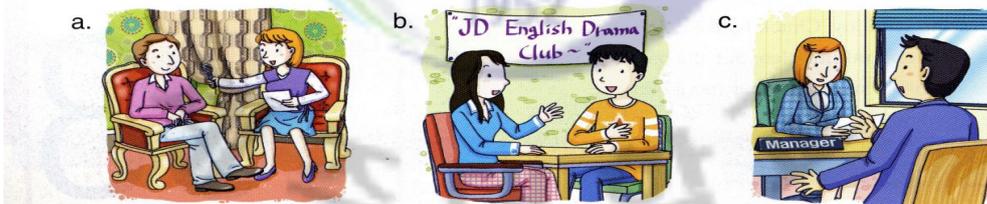
A Choose the answer to each question.

- 1. 어머니의 충고는 무엇인가?
 - a. 휴대 전화 통화 시간을 줄여라.
 - b. 문자 메시지 보내는 횟수를 줄여라.
- 2. 아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 a.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 b. 줄일 수가 없다.

(E학습활동책: p.40)

‘상황 식별’은 보충단계에서 주로 선호되는 듣기 세부 기술로 B학습활동책에서는 듣고 상황에 알맞은 그림을 고르도록 하고 있다.

C  대화를 듣고, 대화의 상황으로 알맞은 그림을 골라 봅시다.



(B학습활동책: p.48)

‘예측하기’는 기본단계와 심화단계에서 약간만 나타난 세부 기술로 먼저 빈 칸에 알맞은 단어를 추측해보고 내용을 들은 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A • Pair Work

1 Try to guess the words in the blanks. Listen and check the answers.

1 Your presentation was impressive, Minsu. I think you really did a _____.

2 Thanks. It is very _____. When is your presentation? _____?

3 Right after the _____. I'm quite _____.

4 _____?

5 It's about Nigerian traditional dances. I've prepared a _____.

6 _____!

(B학습활동책: p.20)

‘듣고 다양한 활동하기’는 심화단계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듣기 세부 기술로 A 학습활동책의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문장을 고쳐 쓰도록 하는 쓰기와의 통합 활동으로 제시되고 있다.

A Listen and rewrite the sentences if they do not correspond to the dialogs.

- (1) • The man has never watched a baseball game.
• The man tells the woman to bring a cap.
- (2) • The man is expected to call Emily or leave a text message.
• The woman will exchange her MP3 player for a new one.

(A학습활동책: p.179)

다음 활동도 마찬가지로 듣고 요약한 내용과 틀린 내용을 올바르게 고쳐 쓰도록 하는 ‘듣고 다양한 활동하기’와 관련된 듣기 활동이라 할 수 있다.

A Listen to the dialog and correct the wrong information in the following summary.

The woman says the man gave a very nice speech, but he wants to know more about what the woman thinks about his public speaking skills. She noticed that he moved back and forth while giving his speech, but she thought this was because he was nervous. In addition, she saw that some of the people in the audience were excited, so she told him that he should have used more gestures to make his speech more interesting.

(A 학습활동책: p.219)

한편 듣기 세부 기술 중 ‘초분절 음소 인식’과 ‘언어 수행 변이 이해’는 관련 듣기 활동이 5종의 학습활동책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4.2 수준별 듣기 활동의 듣기 과정 비교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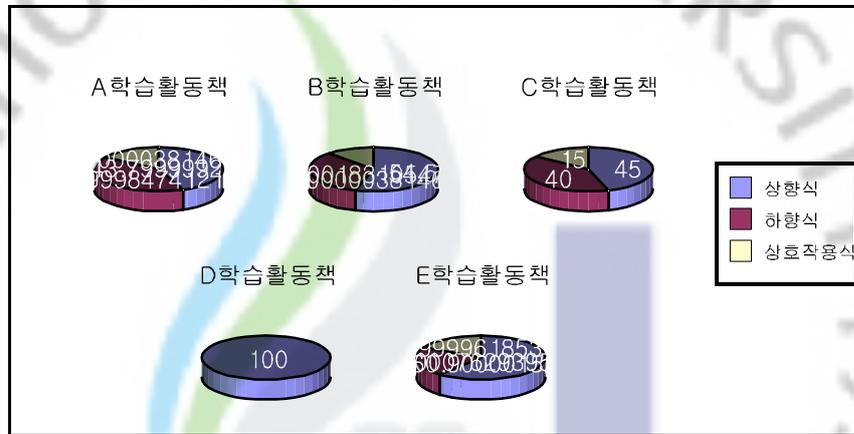
이제 5종의 학습활동책의 듣기활동을 종합하여 수준별로 듣기 과정의 분포에 있어서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보충 단계의 듣기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4.2.1 보충 단계 듣기 활동의 듣기 과정 비교 분석 결과

보충 단계 듣기 활동의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식의 듣기 과정별 분포를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면 <표 8>와 같다. 그리고 <표 8>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를 이용해 표현 한 것이 <그림 3>이다.

<표 8> 보충 단계의 학습활동책의 듣기 과정 분석

학습활동책		A	B	C	D	E
듣기 과정		학습활동책	학습활동책	학습활동책	학습활동책	학습활동책
상향식	문항수	14	18	9	40	14
	%	43.8	54.5	45.0	100.0	60.9
하향식	문항수	13	11	8	0	5
	%	40.6	33.3	40.0	0.0	21.7
상호작용식	문항수	5	4	3	0	4
	%	15.6	12.1	15.0	0.0	17.4
총계	문항수	32	33	20	40	23
	%	100	100	100	100	100



<그림 3> 보충 단계의 학습활동책별 듣기 과정 유형

전반적으로 보충단계에서는 상향식 과정의 듣기 활동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하향식 과정, 상호작용식 순으로 나타났다. 상향식 과정은 학습활동책별로 분포차가 약간 있는 편으로 D학습활동책의 경우 상향식 과정이 100% 차지고 있으며 E와 B학습활동책은 60.9%와 54.5%로 절반이 조금 넘는데 비해 C와 D학습활동책은 45%와 43.8%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향식 듣기 과정은 전체의 약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학습활동책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A와 C학습활동책은 40.6%와 40%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B와 E학습활동책은 33.3%와 21.7%의 분포만을 보이고 D학습활동책은 0%로 관련 듣기 과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상호작용식 과정은 하향식 과정과 마찬가지로 전혀 반영되지 않은 D학습활동책을 제외하고는 E, A, C, B학습활동책이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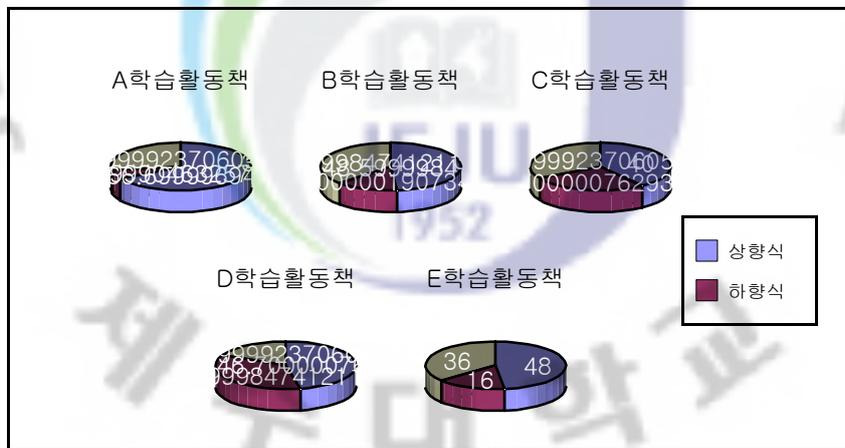
17.4%, 15.6%, 15%, 12.1%로 비슷한 분포를 보여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3.4.2.2 기본 단계 듣기 활동의 듣기 과정 비교 분석 결과

기본단계의 듣기 활동을 듣기 과정별로 비교 분석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그리고 <표 9>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를 이용해 표현한 것이 <그림 4>이다.

<표 9> 기본 단계의 학습활동채별 듣기 과정 분석

학습활동채		A	B	C	D	E
듣기 과정		학습활동채	학습활동채	학습활동채	학습활동채	학습활동채
상향식	문항수	24	17	6	21	12
	%	66.7	48.6	40.0	46.7	48.0
하향식	문항수	2	5	4	16	4
	%	5.6	14.3	26.7	35.6	16.0
상호작용식	문항수	10	13	5	8	9
	%	27.8	37.1	33.3	17.8	36.0
총계	문항수	36	35	15	45	25
	%	100	100	100	100	100



<그림 4> 기본 단계의 학습활동채별 듣기 과정 유형

기본단계에서도 보충단계와 마찬가지로 상향식 과정의 듣기 활동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학습활동채가 66.7%로 절반을 넘고 B, E, D, C학습활동채가 각각 48.6%, 48%, 46.7%, 40%의 분포를 보여 절반에 가깝다. 다음으로는 상호작용식 듣기 과정이 하향식 과정보다 더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B, E, C,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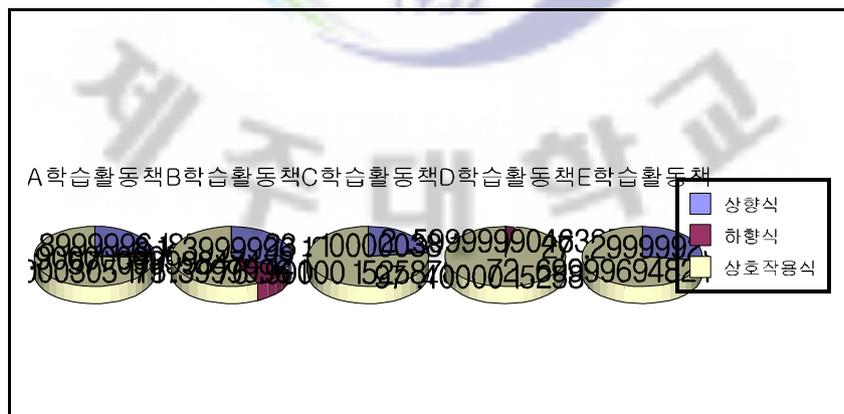
학습활동책의 순으로 37.1%, 36%, 33.3%, 27.8%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D학습활동책에는 상호작용식 듣기 과정이 하향식 과정보다 더 적게 제시되, 상호작용식 과정은 17.8%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하향식 듣기 과정은 D학습활동책이 35.6%로 가장 많이 반영되고 C, E, B, A학습활동책이 각각 26.7%, 16%, 14.3%, 5.6%로 반영되고 있다.

3.4.2.3 심화 단계 듣기 활동의 듣기 과정 비교 분석 결과

심화 단계의 듣기 활동을 듣기 과정별로 비교 분석하여 그 분포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를 이용해 표현한 것이 <그림 5>이다.

<표 10> 심화 단계의 학습활동책별 듣기 과정 분석

학습활동책		A	B	C	D	E
듣기 과정		학습활동책	학습활동책	학습활동책	학습활동책	학습활동책
상향식	문항수	8	11	3	0	6
	%	22.9	31.4	23.1	0.0	27.3
하향식	문항수	1	4	0	1	0
	%	2.9	11.4	0.0	2.6	0.0
상호작용식	문항수	26	20	10	37	16
	%	74.3	57.1	76.9	97.4	72.7
총계	문항수	35	35	13	38	22
	%	100	100	100	100	100



<그림 5> 심화 단계의 학습활동책별 듣기 과정 유형

<표 10>에 의하면 심화단계에서는 상호작용식의 듣기 과정이 E, C, A, E, B 학습활동책의 순으로 97.4%, 76.9%, 74.3%, 72.7%, 57.1%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편이다. 그리고 상향식 듣기 과정의 분포가 B, E, C, A, 학습활동책의 순으로 31.4%, 27.3%, 23.1%, 22.9% 나타났으며 D 학습활동책의 경우는 0%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제일 적은 비중을 차지한 하향식 듣기 과정은 B, A, D 학습활동책에서만 11.4%, 2.9%, 2.6% 나타나는 데 그치고 있다.

3.4.3 수준별 듣기 활동의 듣기 세부 기술 비교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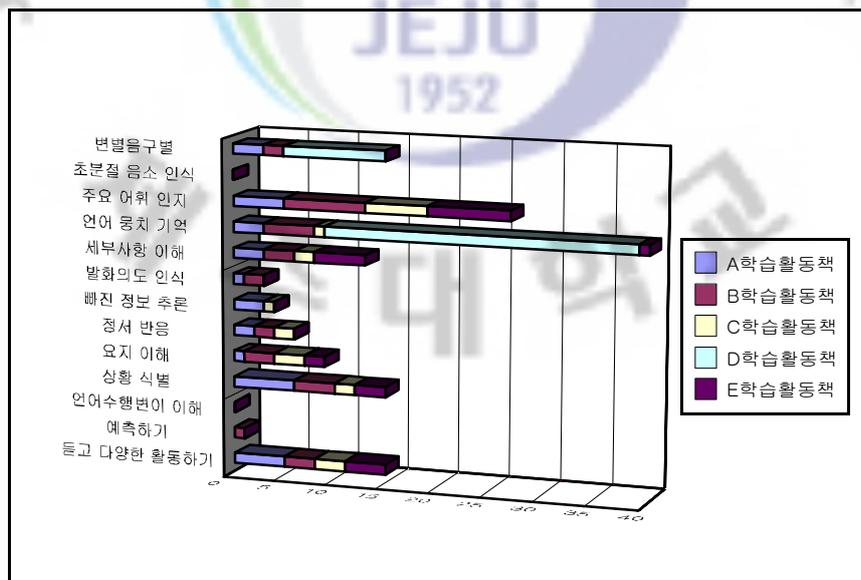
5종의 학습활동책의 듣기 활동을 종합하여 수준별로 제시되는 듣기 세부 기술의 유형에 있어 차이를 비교 분석 결과이다. 먼저 보충 단계 듣기 활동의 듣기 세부 기술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4.3.1 보충 단계 듣기 활동의 듣기 세부 기술 비교 분석 결과

보충단계 듣기 활동에 나타난 듣기 세부 기술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 <표 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1>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를 이용해 표현한 것이 <그림 6>이다.

<표 11> 보충단계의 학습활동책별 듣기 세부 기술 분석

학습활동책		A		B		C		D		E	
		학습활동책		학습활동책		학습활동책		학습활동책		학습활동책	
		문항수	%								
상향식	변별음 구별	3	9.4	2	6.1	0	0.0	10	25.0	0	0.0
	초분절 음소 인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주요 어휘 인지	5	15.6	8	24.2	6	30.0	0	0.0	8	34.8
	언어 문치 기억	3	9.4	5	15.2	1	5.0	30	75.0	1	4.3
	세부 사항 이해	3	9.4	3	9.1	2	10.0	0	0.0	5	21.7
하향식	발화 의도 인식	1	3.1	2	6.1	0	0.0	0	0.0	0	0.0
	빠진 정보 추론	3	9.4	0	0.0	1	5.0	0	0.0	0	0.0
	정서 반응	2	6.3	2	6.1	2	10.0	0	0.0	0	0.0
	요지 이해	1	3.1	3	9.1	3	15.0	0	0.0	2	8.7
	상황 식별	6	18.8	4	12.1	2	10.0	0	0.0	3	13.0
상호 작용식	언어수행변이 이해	0	0.0	0	0.0	0	0.0	0	0.0	0	0.0
	예측하기	0	0.0	1	3.0	0	0.0	0	0.0	0	0.0
	듣고 다양한 활동하기	5	15.6	3	9.1	3	15.0	0	0.0	4	17.4
총계		32	100	33	100	20	100	40	100	23	100



<그림 6> 보충 단계의 학습활동책별 듣기 세부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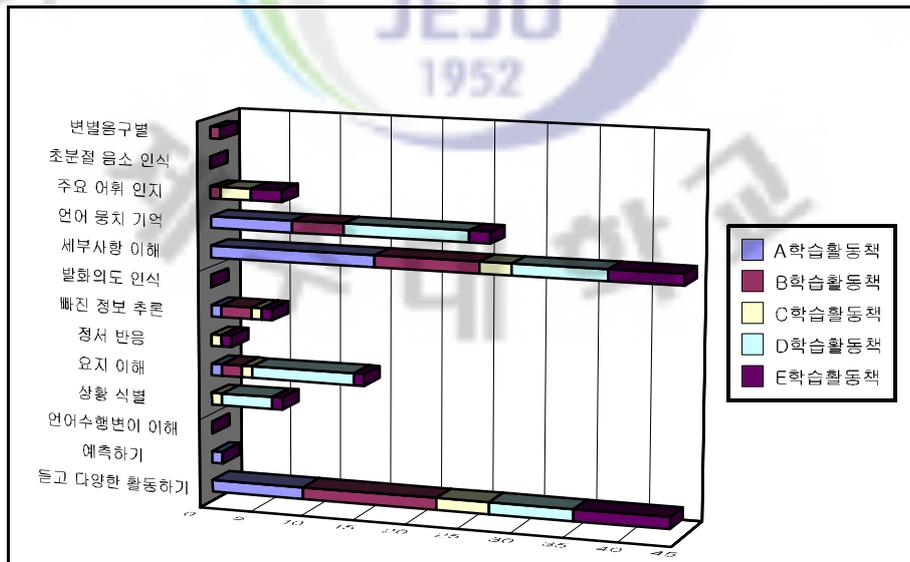
<표 11>에 의거해 보충단계 듣기 활동에서의 세부 기술을 보면 ‘언어 문치 기억’이 5종의 학습활동책을 통틀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부 기술은 모든 학습활동책에서 나오고 있으며 D학습활동책에서 75%로 압도적인 분포를 차지하나 B와 A학습활동책에서 15.2%와 9.4%, C와 E학습활동책에서 5%와 4.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비중이 컸던 기술인 ‘주요 어휘 인지’는 D학습활동책을 제외한 모든 책에서 반영되며 E와 C학습활동책에서는 34.8%와 30.0%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B와 A학습활동책에서는 24.2% 15.6%로 제시되고 있다. 세 번째로 많이 제시된 세부 기술은 ‘변별음 구별’, ‘상황 식별’, ‘듣고 다양한 활동하기’ 세 가지이다. 먼저 ‘변별음 구별’은 학습활동책별로 분포차가 크게 나타나는 세부기술로 D학습활동책에서 25%의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나 A와 B학습활동책에서는 9.4%와 6.1%만 차지하고 C와 E학습활동책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상황 식별’은 D학습활동책을 제외한 모든 학습활동책에서 반영되어 있으며 A와 E학습활동책에서 18.8%와 13%, B와 C학습활동책에서 12.1%와 10%로 나타나고 있다. ‘듣고 다양한 활동하기’ 또한 D학습활동책을 제외한 E, A, C, B학습활동책에서 17.4%, 15.6%, 15%, 9.1%로 반영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제시되는 세부기술들은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세부 사항 이해’는 E, C, A, B학습활동책에서 각각 21.7%, 10%, 9.4%, 9.1%로 반영되고 있다. ‘요지이해’는 C, B, E, A학습활동책의 순으로 15%, 9.1%, 8.7%, 3.1%로 제시되고 있다. ‘정서 반응’은 C, A, B학습활동책에서만 10%, 6.3%, 6.1%의 비중을 차지하고 ‘빠진 정보 추론’은 A와 C학습활동책에서만 9.4%, 5%, ‘발화 의도 인식’은 B와 A학습활동책에서만 6.1% 3.1% 차지하고 있다. ‘예측하기’기술은 B학습활동책에서만 3%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초분절음 인식’과 ‘언어 수행 변이’는 학습활동책을 통틀어 보충단계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된 세부 기술임이 밝혀졌다.

3.4.3.2 기본 단계 듣기 활동의 듣기 세부 기술 비교 분석 결과

기본단계 듣기 활동에 나타난 듣기 세부 기술을 비교 분석 및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그림 7>은 <표 12>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를 이용해 표현한 것이다.

<표 12> 기본단계의 학습활동책별 듣기 세부 기술 분석

학습활동책		A		B		C		D		E	
		학습활동책		학습활동책		학습활동책		학습활동책		학습활동책	
		문 항 수	%								
상향식	변별음구별	0	0.0	1	2.9	0	0.0	0	0.0	0	0.0
	초분절 음소 인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주요 어휘 인지	0	0.0	1	2.9	3	20.0	0	0.0	3	12.0
	언어 뭉치 기억	8	22.2	5	14.3	0	0.0	12	27.3	2	8.0
	세부 사항 이해	16	44.4	10	28.6	3	20.0	9	20.5	7	28.0
하향식	발화 의도 인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빠진 정보 추론	1	2.8	3	8.6	1	6.7	0	0.0	1	4.0
	정서 반응	0	0.0	0	0.0	1	6.7	0	0.0	1	4.0
	요지 이해	1	2.8	2	5.7	1	6.7	10	22.7	1	4.0
	상황 식별	0	0.0	0	0.0	1	6.7	5	11.4	1	4.0
상호 작용식	언어수행변이 이해	0	0.0	0	0.0	0	0.0	0	0.0	0	0.0
	예측하기	1	2.8	0	0.0	0	0.0	0	0.0	0	0.0
	듣고 다양한 활동 하기	9	25.0	13	37.1	5	33.3	8	18.2	9	36.0
총계		36	100	35	100	15	100	44	100	25	100



<그림 7> 기본 단계의 학습활동책별 듣기 세부 기술

<표 12>를 보면 ‘세부 사항 이해’와 ‘듣고 다양한 활동하기’가 거의 비슷하게 기본단계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세부 기술임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부 사항 이해’는 모든 학습활동책에서 반영되고 있으며 그 분포는 A 학습활동책이 44.4%로 가장 크다. B, E, D, C 학습활동책에서는 각각 28.6%, 28%, 20.5%, 20%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듣고 다양한 활동하기’도 모든 학습활동책에서 나오고 있으며 그 분포도 B, E, C, A, D 학습활동책에서 각각 37.1%, 36%, 33.3%, 25%, 18.2%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음으로 비중이 큰 ‘언어 문치 이해’는 C 학습활동책을 제외한 모든 책에 나타나 있으며 그 분포는 D, A, B, E 학습활동책 순으로 27.3%, 22.2%, 14.3%, 8%이다. 그 다음으로는 ‘요지 이해’는 학습활동책별 분포가 D 학습활동책에서는 22.7%이나 C, B, E 학습활동책에서는 각각 6.7%, 5.7%, 4%로 비슷한 편이고 A 학습활동책에서는 2%로 그 비중이 약간 줄어들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제시되는 세부 기술들을 계속 기술하면, ‘주요 어휘 인지’와 ‘상황 식별’은 동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주요 어휘 인지’의 분포는 학습활동책별로 크게 차이가 나서 C 학습활동책에서는 20%이나 E 학습활동책에서는 12%, B 학습활동책에서는 2.9%밖에 불과하며 A와 D 학습활동책에서는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상황 식별’은 D, C, E 학습활동책에서 각각 11.4%, 6.7%, 4% 제시되고 있다. ‘빠진 정보 추론’이 D 학습활동책을 제외한 모든 책에서 B, C, E, A 학습활동책의 순으로 각각 8.6%, 6.7%, 4%, 2.8% 나타나고 있으며 ‘정서 반응’은 C와 E 학습활동책에서 6.7%와 4% 반영되고 있다. 반면 ‘변별음 구별’은 오직 B 학습활동책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세부 기술로 2.9%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예측하기’ 기술은 A 학습활동책에서만 2.8% 나타나고 있다. ‘초분절음 인식’과 ‘언어수행 변이’는 보충단계에서처럼 학습활동책을 통틀어 전혀 반영이 안 된 세부 기술이고 ‘발화 의도 인식’은 기본단계에서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기술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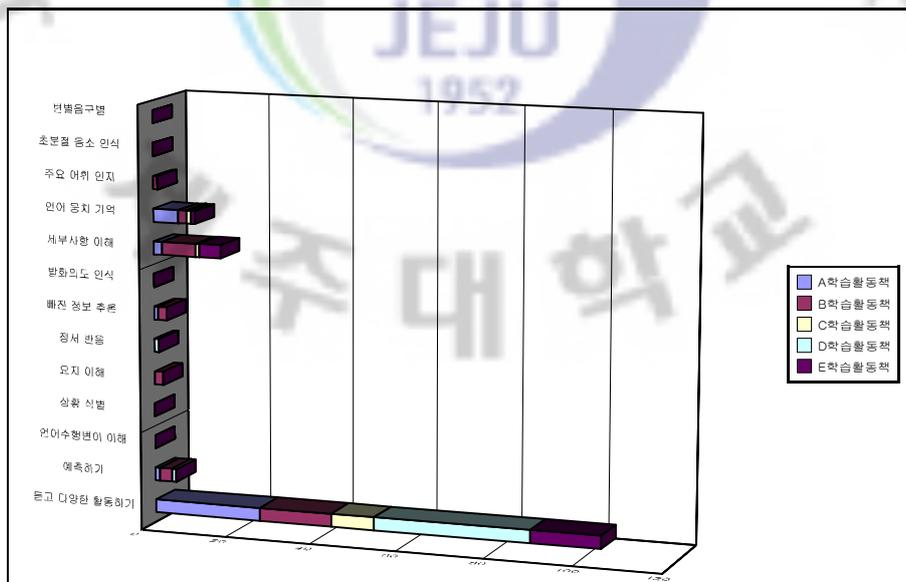
3.4.3.3 심화 단계 듣기 활동의 듣기 세부 기술 비교 분석 결과

심화단계에서의 듣기 활동을 듣기 세부 기술면에서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8>은 <표13>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를 이용해 표현한 것이

다.

<표 13> 심화단계의 학습활동책별 듣기 세부 기술 분석

학습활동책		A		B		C		D		E	
		학습활동책		학습활동책		학습활동책		학습활동책		학습활동책	
		문 항 수	%								
상향식	변별음구별	0	0.0	0	0.0	0	0.0	0	0.0	0	0.0
	초분절 음소 인식	0	0.0	0	0.0	0	0.0	0	0.0	0	0.0
	주요 어휘 인지	0	0.0	1	2.9	0	0.0	0	0.0	0	0.0
	언어 뭉치 기억	6	17.1	2	5.7	1	8.3	0	0.0	1	4.5
	세부사항 이해	2	5.7	8	22.9	1	8.3	0	0.0	5	22.7
하향식	발화의도 인식	0	0.0	0	0.0	0	0.0	0	0.0	0	0.0
	빠진 정보 추론	1	2.9	2	5.7	0	0.0	0	0.0	0	0.0
	정서 반응	0	0.0	0	0.0	0	0.0	1	2.6	0	0.0
	요지 이해	0	0.0	2	5.7	0	0.0	0	0.0	0	0.0
	상황 식별	0	0.0	0	0.0	0	0.0	0	0.0	0	0.0
상호 작용식	언어수행변이 이해	0	0.0	0	0.0	0	0.0	0	0.0	0	0.0
	예측하기	1	2.9	3	8.6	0	0.0	1	2.6	0	0.0
	듣고 다양한 활동하기	25	71.4	17	48.6	10	83.3	36	94.7	16	72.7
총계		35	100	35	100	12	100	38	100	22	100



<그림 8> 심화 단계의 학습활동책별 듣기 세부 기술

<표 13>을 보면 심화단계에서 ‘듣고 다양한 활동하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제시된 기술로 D학습활동책에서는 94.7%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C, E, A 학습활동책에서 83.3%, 72.7%, 71.4%로 많이 반영되어 있으나 B 학습활동책에서는 48.6%에 그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세부 사항 이해’로 B와 E학습활동책에서 22.9%와 22.7%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C와 A 학습활동책에서는 8.3%와 5.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제시된 ‘언어 문치 이해’는 A, C, B, E학습활동책의 순으로 17.1%, 8.3%, 5.7%, 4.5% 나타나고 있다. 위의 두 가지 세부 기술은 D학습활동책을 제외한 모든 학습활동책에서 반영되고 있다. 계속해서 순서대로 많이 제시되는 세부 기술들을 기술하면, ‘예측하기’ 기술은 B, A, D학습활동책에서 8.6%, 2.9%, 2.6%로 극히 일부 반영되고 있고 ‘빠진 정보 추론’이 B와 A학습활동책에서 5.7%와 2.9%, ‘요지 이해’가 B 학습활동책에서만 5.7%, ‘주요 어휘 인지’는 오직 B학습활동책에서만 2.9%로 반영되고 있고 ‘정서 반응’은 D학습활동책에서만 2.6% 나타나고 있다. 심화단계에서 전혀 제시되지 않은 세부 기술로는 ‘변별음 구별’, ‘초분절음 인식’, ‘발화 의도 인식’, ‘상황 식별’과 ‘언어 수행 변이’가 있다.

3.5 분석 결과 논의 및 교육적 시사점

이제 듣기 과정과 듣기 세부 기술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준별로 듣기 활동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이 학생들의 능력차를 반영하여 듣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보충단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상향식 과정의 듣기 활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어휘 및 문법 지식을 요구하는 상향식 과정의 듣기 활동이 많이 제시된 것은 학생들의 부족한 듣기 능력을 고려하여 소리, 단어, 구, 절, 문장 등을 단계적으로 이해하는 듣기 과정을 먼저 학습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호작용식 듣기 과정의 비중이 작은 것 또한 보충단계 학생들의 듣기 능력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나 일상생활에서의 듣기 상황이 상호작용식 과정의 듣기 과정에 보다 가까운 것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상호작용식 활동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 다시 말해 앞서 언급한 Anderson & Lynch(1988:

11-15)이 지적하듯 듣고 이해할 때 언어적 지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 지식이 필요하고 하향식 과정과 상향식 과정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미가 형성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충단계의 학생 수준에 맞는 상호작용식 듣기 과정의 활동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기본단계에서도 보충단계와 마찬가지로 상향식 과정의 듣기 활동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하향식 듣기 과정의 활동이 보충단계보다도 오히려 더 적게 나타난 것은 여전히 어휘와 문법적 능력에 보다 초점을 맞춘 듣기 활동이 많이 제시되는 것으로 이는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상호작용식 듣기 과정의 활동이 보충단계보다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될 수 있겠다.

심화단계에서는 상호작용식 과정의 듣기 활동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상호작용식 과정의 듣기 활동이 일상생활에서의 듣기 상황과 비슷한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실제성(authenticity)이 있는 듣기 활동을 통해 심화단계의 학생들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5종의 학습활동책에서 수준별로 제시되는 듣기 활동을 듣기 세부 기술을 분석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에 대해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실 현장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보도록 하겠다.

보충단계의 듣기 활동에서는 ‘언어 문치 기억’, ‘주요 어휘 인지’, ‘변별음 구별’, ‘상황 식별’, ‘듣고 다양한 활동하기’ 등의 세부 기술을 제시하고 있어 세부 기술 면에서는 가장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듣기 활동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보충단계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듣기 세부 기술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함을 의미하며 그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초분절음 인식’과 ‘언어 수행 변이’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세부 기술로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관련 듣기 활동이 보충되어야 하겠다.

기본 단계의 듣기 활동에서는 주로 ‘세부 사항 이해’와 ‘듣고 다양한 활동하기’ 그리고 ‘언어 문치 기억’ 위주로 제시되어 보충단계보다 듣기 세부 기술이 편중되어 있으며 있었다. ‘상황 식별’, ‘빠진 정보 추론’, ‘정서 반응’, ‘예측하기’는 반영이 되어 있으나 그 비중이 매우 미비하였고 보충단계와 마찬가지로 ‘초분절음 인식’과 ‘언어 수행 변이’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발화 의도 인식’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보다 다양한 듣기 세부 기술을 요구하는 듣기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듣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심화단계의 듣기 활동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듣고 다양한 활동하기’에 치중되어 있어 듣기 세부 기술면에서는 가장 편중 현상이 심하였다. 이는 심화단계에서 듣기와 말하기, 듣기와 쓰기, 듣기와 읽기 등의 통합 활동이 대부분 제시된 결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수 있겠으나 다양한 세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된다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덧붙여 듣기 세부 기술 중 ‘초분절음 인식’과 ‘언어 수행 변이’는 모든 학습활동에서 전 단계에 걸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세부 기술로 그 중요성 면에서 보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초분절음 인식은 의사소통에서 분절음을 인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듣기 활동에서 초분절음을 인식하는 활동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은 학습자의 듣기 능력을 신장시키거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적지 않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억양은 의문문, 평서문, 강조 뿐 만 아니라 비꼬는 말, 모욕적인 말, 칭찬, 애정을 표현하는 말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아울러 언어수행상의 변이(performance variables)는 음성언어에 많이 나타나는 특징으로 말하기를 주저하는 것, 말을 하는 도중 멈추는 것, 한 말을 다시 수정하는 것, 처음에 말을 잘못 시작하는 것, 말실수(slip)하는 것 등이 있다(Byrne, 1986: 8-9). 구어의 경우, 강의나 연설 등의 계획된 담화를 제외하고는 망설임, 말화 시작상의 오류, 휴지 등이 일반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언어 수행상의 변이는 제 2 언어 학습자에게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관련된 듣기 활동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IV. 학습활동책의 듣기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본 장에서는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준별 영어 수업⁷⁾에서 학습활동책이 얼마나 활용되고, 학습활동책의 듣기 활동의 내용과 구성에 있어서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다른 문제점과 개선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및 그 교육적 시사점을 다루도록 하겠다.

4.1 설문 조사 대상 및 설문지 구성

본 설문조사는 제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1개의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45명의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지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준별 수업 시 학습활동책의 활용도, 학습활동책의 보충, 기본, 심화 수준별 듣기 활동의 내용 및 구성에 관한 만족도, 듣기 활동의 개선점 등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설문문항은 대부분 5지 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생들의 듣기 능력 신장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세부기술을 선택하도록 문항에서는 13개의 답안 중 3가지를 고르도록 하였다.

4.2 설문 조사 결과

7) 현재 제주도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수업의 경우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학급을 소집단으로 재편성하고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수업 내용을 제공하는 수준별 이동 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준별 운영을 위한 편성 기준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성적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표 14>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 만족도에 대한 설문 응답표

문항	응답				
	1	2	3	4	5
1.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의 보충, 기본, 심화 학습의 수준별 구성에 만족하십니까?	3 (6.7%)	21 (46.7%)	15 (33.3%)	5 (11.1%)	1 (2.2%)
2.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의 보충, 기본, 심화 학습의 수준별 구성이 학생들의 듣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 (6.7%)	22 (48.9%)	11 (24.4%)	7 (15.6%)	2 (4.4%)
3.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의 분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2%)	11 (24.4%)	24 (53.3%)	7 (15.6%)	2 (4.4%)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보통이다 4=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지 않다)

설문 1)의 듣기 활동의 수준별 구성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3명(6.7%),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21명(46.7%)으로 50%이상의 교사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교사도 15명으로 33.3%에 달했다. 설문 2)의 듣기 활동의 수준별 구성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3명(6.7%),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22명(48.7%)으로 약 55%의 교사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설문 3)의 듣기 활동 분량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교사가 24명으로 53.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그렇다’라고 답한 교사가 11명으로 24.4%를 차지하였다.

<표 15>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 활용도에 대한 설문 응답표

문항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4.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에 따라 수업 시간에 보충, 기본, 심화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7 (15.6%)	12 (26.7%)	10 (22.2%)	13 (28.9%)	3 (6.7%)
문항	일부만 다루고 있다.	일부는 수업시간에 다루고 일부는 과제로 부여한다.	대부분 과제로 내고 있다.	거의 다루고 있지 못하다.	거의 다 다루고 있다.
5.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을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25 (55.6%)	11 (24.4%)	2 (4.4%)	4 (8.9%)	3 (6.7%)
문항	수업시간의 10% 이내	수업시간의 10~20%	수업시간의 20~30%	수업시간의 30~40%	수업시간의 40% 이상
6.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을 수업 시간에 얼마나 할애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14 (31.1%)	15 (33.3%)	11 (24.4%)	5 (11.1%)	0 (0.0%)

설문 4)번의 수준별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15.6%)와 ‘그렇다’(26.7%)는 답변이 약43%로 가장 많으나 ‘그렇지 않다’(28.9%)와 ‘매우 그렇지 않다’(6.7%)는 답변도 약35%로 수준별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교사도 상당수 됨을 알 수 있었다. 설문 5)번의 학습활동책 활용에 관한 설문에는 ‘일부만 다룬다’는 응답이 3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0%를 차지하며 그 중 11명(24.4%)은 일부를 과제로도 할당함을 알 수 있었다. 설문 6)번의 수업시간에 학습활동책을 활용하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교사가 수업 시간의 30% 이내를 할애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10% 이내라고 응답한 교사가 14명(31.1%), 10%~20%가 15명(33.3%), 20~30%가 11명(24.4%)이었다.

<표 16>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의 내용 및 구성에 대한 설문 응답표

문항	응답				
	1	2	3	4	5
7.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듣기 활동이 단순한 이해점검의 내용보다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6.7%)	11 (24.4%)	16 (35.6%)	14 (31.1%)	1 (2.2%)
8.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듣기 활동이 듣기 전략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0.0%)	14 (31.1%)	19 (42.2%)	8 (17.8%)	4 (8.9%)
9.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듣기 활동이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4.4%)	19 (42.2%)	10 (22.2%)	11 (24.4%)	3 (6.7%)
10.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듣기 활동이 목표어에 대한 문화를 접하고 목표문화 내용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4.4%)	9 (20.0%)	21 (46.7%)	13 (28.9%)	0 (0.0%)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보통이다 4=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지 않다)

설문 7)번의 의사소통의 기회가 표현능력 학습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교사가 16명(35.6%)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이 33.3%를 보이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는 응답은 31.1%로 긍정적인 대답과 부정적인 대답이 엇갈림을 알 수 있었다. 설문 8)번의 듣기 전략 훈련에는 19명(42.2%)이 ‘보통이다’라고 생각하였으며 ‘그렇다’는 응답이 14명으로 전체의 31.1%를 차지하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인 8%보다 많았다. 설문 9)번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는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가 19명(42.2%)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매우 그렇다’를 포함해 긍정적인 답변이 50%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는 반응과 ‘보통이다’는 반응은 각각 11명과(24.4%) 10명(22.2%)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설문 10)번의 문화학습에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21명(46.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13명, 28.9%)이 ‘그렇다’는 응답(9명, 20.0%) 보다 약간 우세하였다.

<표 17>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 수업 조직 유형 및 통합 활동에 대한 설문응답표

문항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1.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짝 활동 및 소집단 활동으로 제시된 듣기 활동의 비중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2%)	7 (15.6%)	27 (60.0%)	9 (20.0%)	1 (2.2%)
12.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듣기와 말하기, 듣기와 읽기 및 듣기와 쓰기 능력의 통합 활동의 비중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2%)	16 (35.6%)	19 (42.2%)	8 (17.8%)	1 (2.2%)
13.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에서 듣기와 연계된 통합 활동의 비중을 늘리고자 할 때 어느 언어 기능과의 통합 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듣기와 말하기 19 (42.2%)	듣기와 읽기 5 (11.1%)	듣기와 쓰기 8 (17.8%)	3가지 이상의 기능이 연계된 활동 13 (28.9%)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보통이다 4=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지 않다)

설문 11)번의 소집단활동 비중에는 ‘보통이다’라고 생각한 교사가 27명(60.0%),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가 9명(20.0%), ‘그렇다’가 7명(15.6%) 순이었다.

설문 12)번의 통합 활동의 비중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고 생각한 교사가 19명(4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그렇다’고 생각한 교사가 6명(35.6%)으로 ‘그렇지 않다’는 8명(17.8%)의 두 배 가까이 되었다. 설문 13)번의 구체적인 통합 활동 비중을 묻는 설문에는 19명(42.2%)의 교사가 ‘듣기와 말하기’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3가지 이상의 기능이 연계된 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대답한 교사도 13명(28.9%)이나 되었다.

<표 18>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 입력 자료에 대한 설문 응답표

문항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4.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듣기 활동이 다양한 장르의 듣기 입력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6.7%)	17 (37.8%)	18 (40.0%)	5 (11.1%)	2 (4.4%)
15.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듣기 입력 자료가 목표문화권의 화자에 의해 생성된 담화나 글인 실제적 자료(authentic material)로서 학생들에게 원어민이 real life에서 쓰는 언어를 접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2 (4.4%)	8 (17.8%)	19 (42.2%)	15 (33.3%)	1 (2.2%)
16.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의 듣기 입력 자료가 실제적 자료(authentic material)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		그렇지 않다		
	43 (95.6%)		2 (4.4%) 이유: 수준에 맞는 실제적 자료의 활용 1 (2.2%) 어휘수준과 듣기 노출 정도 고려 1 (2.2%)		
17.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듣기 입력 자료가 미국식 영어뿐만 아니라 영국식 영어 및 영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여러 나라의 화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4 (8.9%)	3 (6.7%)	12 (26.7%)	20 (44.4%)	6 (13.3%)
18.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듣기 활동 진행시 듣기 입력 자료를 한번만 들려주십니까? 두 번 이상 들려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	
	12 (26.7%)	27 (60.0%) 이유: 세부사항 파악 13(28.8%) 수준 고려 10(22.2%) 발음 교육 2 (4.4%) 받아쓰기 1 (2.2%) 무응답 1 (2.2%)	4 (8.9%)	2 (4.4%) 이유: 수준 고려 4(8.9%)	

설문 14)번의 듣기 자료의 장르에는 ‘보통이다’와 ‘그렇다’가 18명(40.0%)과 17명(37.8%)으로 반응이 비슷하였다. 설문 15)번 실제적 자료(authentic material)에는 ‘보통이다라’라는 응답이 19명(42.2%),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15명(33.3%)으로 전반적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이 실제적 자료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17)번의 영국영어 및 기타 영어의 제공여부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응답자가 20명(44.4%), ‘매우 그렇지 않다’가 6명(13.3%)으로 전체의 60%에 가까운 답변이 부정적이었다. 긍정적인 응답은 ‘매우 그렇다’가 4명, ‘그렇다’가 3명으로 7명에 그쳤다. 반면 보통이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12명(26.7%)이었다. 설문 16)번의 실제적 자료(authentic material)의 찬성여부에는 ‘그렇다’가 43명(95.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반대하는 2명의 교사는 그 이유로 ‘모든 입력 자료를 실제적 자료로 활용하기보다는 수준에 맞는 적절한 활용’, ‘학생들의 어휘수준과 듣기에 대한 노출 정도가 고려’를 들었다. 설문 18)번의 질문에는 27명(60.0%)의 교사가 ‘두 번 들려준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의 교사가 ‘이해 점검’이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밖에 ‘세부 사항 파악’, ‘수준고려’, ‘발음 교육’, ‘받아쓰기 활동’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한 번 들려준다’가 12명(26.7%)이었다.

<표 19>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과정 및 세부기술에 대한 설문 응답표

19.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이 듣기 과정 중 어느 과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응답	상향식 과정	3 (6.7%)
	하향식 과정	10 (22.2%)
	상호작용식 과정	32 (71.1 %)
20.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듣기 활동 세부 기술 중 학생들의 듣기 능력 신장을 위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세부기술을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응답
응답	변별음구별	5 (3.7%)
	초분절 음소 인식	4 (3.0%)
	주요 어휘 인지	19 (14.1%)
	언어 문치 기억	11 (8.1%)
	세부사항 이해	18 (13.3%)
	발화의도 인식	12 (8.9%)
	빠진 정보 추론	5 (3.7%)
	정서적 반응 식별	3 (2.2%)
	요지 이해	23 (17.0%)
	상황 식별	22 (16.3%)
	언어수행변이 이해	2 (1.5%)
	예측하기	5 (3.7%)
	듣고 다양한 활동하기	6 (4.4%)

설문 19)번의 보완되어야 하는 듣기 과정을 묻는 질문에는 ‘상호작용식 과정’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압도적으로 많아 32명으로 71.1 %에 달했다. 설문 20)번의 듣기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세부기술을 묻는 항목에서는 3가지 기술을 복수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기술은 ‘요지이해’(23명, 17.

0%)였으며 ‘상황식별’(22명,16.3%)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주요어회인지’는 19명(14.1%)의 교사들이 선택하였으며 ‘세부 사항 이해’도 18명(13.3%)이었다.

<표 20>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 개선점에 대한 설문 응답표

문항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21.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외에 별도의 수준별 듣기 학습 자료의 필요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12 (26.7%)	16 (35.6%)	7 (15.6%)	8 (17.8%)	2 (4.4%)	
22.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의 보완점 및 개선점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보충기본 심화 내용 수준의 적절성	듣기 활동 분량 확대	듣기활동 및 세부 기술의 다양화	통합 활동 비중 확대	작 활동 및 소집단 활동의 비중 확대	기타
	11 (24.4%)	4 (8.9%)	15 (33.3%)	11 (24.4%)	4 (8.9%)	0 (0%)

설문 21)번의 별도의 자료의 필요성을 느낀 교사는 ‘매우 그렇다’ 12명(26.7%), ‘그렇다’가 16명(35.6%)으로 ‘그렇지 않다’ 8명(17.8%), ‘매우 그렇지 않다’ 2명(4.4%)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교사의 두 배 이상이었다. 설문 22)번의 보완점 및 개선점에 대해서는 ‘듣기 활동 및 세부기술의 다양화’가 15명(3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준의 적절성’과 ‘통합 활동 비중 확대’가 각각 11명(24.4%), ‘활동분량 확대’와 ‘소집단 활동 확대’가 각각 4명(8.9%)이다.

4.3 설문 조사 결과 논의 및 교육적 시사점

이상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활동책을 활용한 수준별 수업의 운영과 듣기 활동을 위한 시사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교사들은 학습활동책의 구성에 만족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한편 실제로 이를 활용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부만을 다룬다는 응답이 전체를 80%에 달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학습 활동책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이 수준별 수업의 강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 7차 교육과정이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된 바 이를 통한 수준별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원인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명시된 통합 활동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사소통의 기회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와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높게 나타난 결과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보다 많은 의사소통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듣기 활동과 다른 기능과의 통합 활동이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 듣기와 말하기, 듣기와 읽기, 듣기와 쓰기를 통합한 활동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겠으나 음성 언어 측면에서 볼 때는 듣기와 말하기의 통합 활동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Byrne(1986: 10-11)과 Finicchiaro & Brumfit(1983: 140)은 대화의 상호작용적 측면 때문에 듣기와 말하기가 서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셋째, 의사소통 표현 기회의 확대 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소집단 활동이다. 소집단 활동은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수업을 위한 교수 학습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었으며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사소통의 기회를 늘리는 효과가 있고 학생의 정의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Long & Porter(1985: 207-208)는 소집단 활동을 할 경우 개별 학습자가 정의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개인별 학습이 다섯 배 정도 증가해 상호작용적 언어를 형성하며 학습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증진된다고 말하고 있다. 학습활동책의 대부분의 듣기 활동이 개별 활동임을 고려한다면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화 기회를 갖는 소집단 활동을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에 대한 노출과 더불어 그에 대한 학습의 강화는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에서도 찾아 볼 수 있지만 듣기 활동을 통한 문화학습의 기회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어를 세계어(global

language) 개념으로 사용하고 영어교육의 목표를 원어민(native speaker)이 아니라 문화 간 화자(intercultural speaker)의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문화 항목을 언어 재료에서 언어 내용의 항목으로 바꿔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영어를 통해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나 상황, 화제에 따라 사회 문화적으로 적절한 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Bachman, 1990: 87). 이는 교과서 제작자 뿐 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즉 교사는 별도의 듣기 자료를 통해서 보다 많은 문화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원어민이 쓰는 실제적 자료의 제공은 의사소통능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나 설문결과를 볼 때 듣기 자료를 통해 접하게 되는 실제적 자료(authentic material)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⁸⁾ Brown(1994: 238-241)에 따르면 음성언어에는 여러 가지 축약형(reduced form)이 많이 있고 언어 수행상의 변이(performance variables)가 많으며 다양한 말 전달 속도(rate of delivery)와 다양한 길이의 휴지(pause)등이 존재하며 회화체 언어(colloquial language)가 많이 등장해 영어를 제 2언어로 학습하는 자는 이로 인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음성 언어의 실제적 자료를 많이 접하게 함으로써 구어의 이러한 특징을 인식시키고 이러한 요소가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교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하겠다.

여섯째, 개선점에 관한 질문에서 상당수의 교사들이 듣기 활동 및 세부 기술의 다양화를 꼽았다. 이에 학습활동책의 제한된 듣기 세부 기술 능력 뿐 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듣기 세부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8) Morely(1991)는 효과적인 듣기 능력 신장을 위해 듣기 자료는 실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세계에서 접할 수 있는 실제적 듣기 자료를 들을 때 교실 밖 상황에서의 적용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실제적 자료(authentic material)란 Peter & Roberts(1987: 27-28)의 정의에 의하면 교수를 목적으로 비모국어 학습자를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닌 실제 원어민이 사용하는 구두 언어로 된 자료들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제언

제 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중심과 학생 개인차를 반영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강조하였으나 여러 요인으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보조 교과서인 영어 학습활동책을 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9학년부터 전국의 고등학교 1학년생에게 보급된 고등영어 학습활동책은 본 교과서의 내용과 연계되어 수준별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보조 교과서로 수준별 수업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의 산물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학습활동책의 듣기 활동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듣기 과정과 듣기 세부 기술면에서 수준별 듣기 활동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습활동책으로 수업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학습활동책의 활용 정도와 제 7차 및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반영 정도를 살펴보아 듣기 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학습활동책 분석 결과 보충단계의 듣기 활동은 상향식 듣기 과정이 제일 많이 나타난 가운데 학생들의 부족한 듣기 능력을 반영하여 듣고 단계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이 많았다. 그러나 상호작용식 듣기 과정의 활동을 좀 더 늘려 실제 의사소통과 비슷한 환경의 듣기 활동을 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반면 세부기술에 있어서는 ‘언어뭉치기억’, ‘주요어휘인지’, ‘세부사항 이해’, ‘상황식별’, ‘요지 이해’, ‘듣고 다양한 활동하기’ 등 가장 다양한 세부 기술을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듣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본단계의 듣기 활동에서는 하향식 듣기 과정의 비중이 보충단계보다 줄어든 점이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되었으며 듣기 세부 기술에 있어서는 일부 세부 기술에 치중되어 있어 보충단계의 학생과 비교할 때 다양한 듣기 세부 기술을 학습할 기회가 적음을 시사하였다. 심화단계의 듣기활동은 상호작용식 듣기 과정 위주로 제시되어 보다 실제성이 높은 듣기 활동이 제공됨을 알 수 있었고 세부기술은 ‘듣고 다양한 활동하기’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심화단계에서는 통합 활동이 많이 제시되어 듣기와 다른 언어 기능의 고른 발달을 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분절음 인식’과 ‘언어수행 변이’는 모든 학습활동책의 전 단계에 걸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듣기 세부기술로 분석되어 그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를 위한 듣기 활동이 보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이 밝혀졌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교사들이 수준별 듣기 활동의 내용과 구성 및 듣기 활동량에 있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준별 수업 시 학습활동책의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준별 수업이 학교상황에 맞춘 권장사항이며 학교 자체적으로 수준별 수업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수업시간에 극히 일부분의 시간만을 할애해서 활동책의 일부분을 다루고 있는 현 상황은 학습활동책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별도의 수준별 수업 자료를 제작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학습활동책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의 모색은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교사 지침서를 통해 학습활동책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거나 교사들의 연수를 늘리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선 설문조사 결과, 2007년 개정 영어 교육과정의 내용을 더욱 잘 반영하도록 학습활동책의 듣기 활동 내용과 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원활하고 자연스러우며 사회 문화적으로 적절한 영어 사용 능력을 위한 문화관련 내용을 보강하고, 듣기 활동에 있어서 타 기능과의 연계된 통합 활동을 늘려 통합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꾀하고, 소집단 활동을 확대하여 학생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실제성 있는 듣기 입력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고 다양한 듣기 세부 기술을 학습하도록 듣기 활동을 개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끝으로 사회와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학생 개인차를 반영하여 학습자 중심의 영어 교육이 되기 위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어 수준별 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영어 학습활동책의 낮은 활용도를 보이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학습활동책의 수준별 듣기 활동의 보완점과 개선점을 참고하여 2007년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학생 능력에 알맞은 듣기 활동이 설계되어야 하며 부족한 듣기 세부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듣기 활동을 교사들은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부분 수정 고시」.
(제 2006-75호)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경기도 교육청. (2008). 「수준별 보조교과서 활용 교수·학습 모형」.
경기도 교육청 강사 요원 연수. 경기도 교육청.
- 김택기 외. (2008). *High School English Activities*. 서울: (주) 금성출판사.
- 김성곤 외. (2008). *High School English Activities*. 서울: (주) 두산출판사.
- 박인정. (2008). “중학교 1학년 영어 학습활동책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봉 외. (2008). *High School English Activities*. 서울: (주) 디딤돌출판사.
- 이인기 외. (2008). *High School English Activities*. 서울: (주) 천재출판사.
- 이의갑 외. (2004) 「영어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 장영희 외. (2008). *High School English Activities*. 서울: (주) 능률출판사.
- Anderson, A. & Lynch, T. (1988). *Listen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chman, L. F.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 D. H. (1994).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NJ: Prentice-Hall, Inc.
- Byrne, D. (1986). *Teaching oral English*. England: Longman.
- Carrell, P. L. & Eisterhold, J. C. (1987). Schema theory and ESL reading pedagogy. In M. Long & J. Richards (Eds.), *Methodology in TESOL: A book of readings*. MA: Heinle & Heinle Publisher. 218-232.
- Finocchiaro, M & Brumfit, C.(1983). *The functional- notional approach: From theory to practice*. NY: Oxford University Press.
- Krashen, S. D. (1982). *The principle and practic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Press.

- Long, M. & Porter, P. A. (1985). Group work, interlanguage talk,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rterly*, 19, 207-208.
- Morley, J. (1991). Listening comprehension in second/foreign language instruction.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2nd Ed.). MA: Heinle & Heinle Publisher. 85-105.
- Peterson, P. W. (1991). A synthesis method for interactive listening.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2nd Ed.). MA: Heinle & Heinle Publisher. 106-122.
- Richards, J. C. (1987). Listening comprehension: approach, design, procedure. In M. H. Long, and J. C. Richards. (Eds.), *Methodology in TESOL: A book of readings*. MA: Heinle & Heinle Publisher. 161-176.
- White, J. (1998). *Listen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n Analysis of High School English Activity Book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Focusing on Listening Comprehension Activities-*

Im, Juyeon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ongh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listening comprehension activities of the high school activity books, which are newly developed and authoriz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ccording to the 2007 revised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The high school activity books contain three different levels of listening comprehension activities which are prepared for supplementary class, basic class, and advanced class. Listening comprehension activities in each level are analyzed in terms of the listening comprehension process and listening sub-skills. In addition, questionnaires on listening comprehension activity were issued to 45 high school teachers who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0.

have used this book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and survey is as follows:

First, listening comprehension activities for supplementary classes are found to show higher percentage in the bottom-up process and present the most listening sub-skills. Whereas listening comprehension activities for basic classes have lowerer percentage in the top-down process and offer the second most listening micro-skills. Lastly the interactive process is favored in listening comprehension activities for advanced classes with the least listening sub-skills.

Second, the high school activity books doesn't reflect properly the content of the 2007 revised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especially about the culture, small group activity, and integration of 4 language skills.

Third, teachers who have utilized the high school activity books show positive attitudes on them but don't use them much during classes.

Fourth, language input for listening comprehension activities lack the authenticity. Also listening comprehension activities are not designed for the acquisition of the different kinds of listening micro-skill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the questionnaire survey, the following suggestions have been made. First, the authorities should seek the ways to make better use of the high school activity books. Second, textbook writers need to develop the appropriate listening comprehension activities for each level which reflect the content of the 2007 revised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They should consider the authentic materials and various listening sub-skills as the key factors when they design listening comprehension activities. Third, it is suggested that teachers should try to provide opportunities to communicate for students through small group activities and integration of 4 language skills.

< 부 록 >

《 고등영어 학습활동책 (activity book)의
수준별 듣기 활동에 관한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2009학년도부터 적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영어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수준별 듣기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 평소에 느끼신 점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오직 연구만을 위해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할애 해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본 정보

1. 성별 () ① 남 ② 여
2. 교직경력 () ① 1~5년 ② 6~10년 ③ 11년~15년
 ④ 16~20년 ⑤ 21년 이상

☞ 설문 내용 및 답변 요령

- 설문을 잘 읽고 해당 번호를 괄호 안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 기타 란에는 보기 외에 의견이 있을 경우 적어주십시오.
○ 이유 란에는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 만족도 】

1.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의 보충, 기본, 심화 학습의 수준별 구성에 만족하십니까? (변)
① ② ③ ④ ⑤
2.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의 보충, 기본, 심화 학습의 수준별 구성이 학생들의 듣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
① ② ③ ④ ⑤
3.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의 분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
① ② ③ ④ ⑤

【 활용도 】

4.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에 따라 수업 시간에 보충, 기본, 심화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변)
① ② ③ ④ ⑤
5.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을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변)
① 일부만 다루고 있다. ② 일부는 수업시간에 다루고 일부는 과제로 부여한다.
③ 대부분 과제로 내고 있다. ④ 거의 다루고 있지 못하다. ⑤ 거의 다 다룬다.
6.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을 수업시간에 얼마나 활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변)
① 수업시간의 10% 이내 ② 수업시간의 10~20% ③ 수업시간의 20~30%
④ 수업시간의 30~40% ⑤ 수업시간의 40%이상

【 듣기 활동의 내용 및 구성 】

7.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듣기 활동이 단순한 이해점검의 내용보다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
① ② ③ ④ ⑤
8.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듣기 활동이 듣기 전략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
① ② ③ ④ ⑤

9.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듣기 활동이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

- ① ② ③ ④ ⑤

10.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듣기 활동이 목표어에 대한 문화를 접하고 목표문화 내용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

- ① ② ③ ④ ⑤

【 듣기 활동의 수업 조직 유형 및 통합 활동 】

11.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짝 활동 및 소집단활동으로 제시된 듣기 활동의 비중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

- ① ② ③ ④ ⑤

12.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듣기와 말하기, 듣기와 읽기 및 듣기와 쓰기 능력의 통합 활동의 비중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

- ① ② ③ ④ ⑤

13.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에서 듣기와 연계된 통합 활동의 비중을 늘리고자 할 때 어느 언어 기능과의 통합 활동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

- ① 듣기와 말하기 ② 듣기와 읽기 ③ 듣기와 쓰기 ④ 3가지 이상 기능이 연계된 활동

【 듣기 입력 자료 】

14.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듣기 활동이 다양한 장르의 듣기 입력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

- ① ② ③ ④ ⑤

15.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듣기 입력 자료가 목표문화권의 화자에 의해 생성된 담화나 글인 authentic material로서 학생들에게 원어민이 real life에서 쓰는 언어를 접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변)

- ① ② ③ ④ ⑤

16.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의 듣기 입력 자료가 authentic material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이유: _____

17.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듣기 입력 자료가 미국식 영어뿐만 아니라 영국식 영어 및 영어를 제2 언어로 사용하는 여러 나라의 화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번)

- ① ② ③ ④ ⑤

18.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듣기 활동 진행시 듣기 입력 자료를 한번만 들려주십니까? 두 번 이상 들려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번)

- ① 한 번 ② 두 번 이유: _____
 ③ 세 번 이유: _____ ④ 네 번 이상 이유: _____

【 듣기 과정 및 세부기술 】

19.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듣기 활동이 듣기 과정 중 어느 과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번)

- ① 상향식 과정 ② 하향식 과정 ③ 상호작용식 과정

20. 학습활동책(activity book)의 듣기 활동 세부 기술 중 학생들의 듣기 능력 신장을 위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세부기술을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번)

- ① 변별음구별 ② 초분절 음소 인식 ③ 주요 어휘 인지 ④ 언어 뭉치 기억
 ⑤ 세부사항 이해 ⑥ 발화의도 인식 ⑦ 빠진 정보 추론 ⑧ 정서적 반응 식별
 ⑨ 요지 이해 ⑩ 상황 식별 ⑪ 언어수행변이 이해 ⑫ 예측하기
 ⑬ 듣고 다양한 활동하기(듣기와 타 기능과의 통합 활동을 수행하는 기술)

【 개선점 】

21. 학습활동책(activity book) 외에 별도의 수준별 듣기 학습 자료의 필요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번)

- ① ② ③ ④ ⑤

22. 학습활동책(activity book)듣기 활동의 보완점 및 개선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번)

- ① 보충, 기본, 심화 내용 수준의 적절성 ② 듣기 활동 분량 확대
 ③ 듣기 활동 및 세부 기술의 다양화 ④ 통합 활동 비중 확대
 ⑤ 짝 활동 및 소집단활동의 비중 확대 ⑥ 기타: _____